

Altan Tobči 研究

金 芳 漢*

第一部 研究篇

1. 序 論

111. 本研究는, 元朝秘史를 除外한다면 最古의 蒙文年代記이며 Zamcarano 가 달하듯 蒙古文學에서 記念塔的 存在이기도 한 Altan tobči(黃金史), 더 正確히는 Qad-un ündüsün-ü quriyangrui altan tobči(帝王根源要略黃金史綱)의 蒙古語에 관한 研究이다.

本研究는 第一部 研究篇과 第二部 特殊語彙篇으로 區分된다. 第一部에서는 黃金史의 蒙古語에 대한 言語的 特徵이 主對象이나, 여기 앞서 異本과 編述年代에 대한 것도 아울러 對象이 된다. 異本關係는 말할 것도 없고 編述年代의 推定은 그 言語的 特徵을 考察하는데 重要한 意義가 있음은 再論의 餘地도 없다. 編述年代에 관해서는 從來 몇 가지 說이 提示된 바 있으나, 아직도 定說이 없다. 여기 대한 筆者의 새로운 見解가 提示될 것이다. 여기서 「著作」「著述」年代라는 一般的 用語를 使用하지 않고 굳이 「編述」年代라는 用語를 使用하는 理由는 뒤에 밝혀질 것이다. 第二部는 黃金史의 特殊語彙에 관한 研究이다. 다음 研究史에서 보는 바와 같이 從來 몇가지 翻譯이 發表된 바 있으나, 許多한 難點을 內包하고 있어서 完全한 翻譯까지에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難解한 語句 및 古風的인 表現과 語法 등 너무도 많은 難點을 內包하고 있기 때문이다. 特히 先古典文語의 特徵的인 語彙로서 辭典에서 볼 수

*서울대학교 文理科大學 教授(言語學)

없는 많은 語彙에 대한 解釋이 가장 큰 問題이다. 이러한 語彙의 解明과 그러한 部分에 대한 새로운 解釋을 提示하려는데 目的이 있다. 譯文은 直譯을 提示하고 뒤에 따로 意譯을 提示하는 것이 좋은 方法이라 생각되나, 本稿에서는 直譯·意譯을 個別的으로 提示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譯文은 될 수 있는 限 原文에 忠實한 直譯을 主로 했으나, 때로는 意譯한 곳도 더러 있다. 그러나 意譯은 全體의 뜻을 把握하기에 困難을 느낄 때에만 限했다.

112. 16-17世紀는 蒙古의 새로운 歷史時代로 Buddhist Renaissance 時期라 일컬어지며 言語上으로는 佛教關係의 哲學的 또는 宗教的 用語가 大量 輸入되었을 뿐만 아니라, 正書法이 統一되고 口語的 要素가 除去되며 Uighul 語에서 借用된 意味不明 혹은 難解한 낱말이 廢語化되고, 또한 文法이 統一되어 여기 古典文語라고 부르는 規範的인 文語가 成立되는 것은 더 말할 必要도 없을 것이다. 이때 佛教의 普及으로 因한 木版印刷의 發達이 文語의 統一에 크게 寄與했음은 勿論이다. 그리하여 古典文語에 앞선 所謂 先古典文語는 大體로 17世紀까지 繼續되는 것으로 본다. 先古典文語에는 正書法과 文法에 統一性이 없고 特히 形態論과 統辭論에는 特殊한 特徵들이 있다. 그렇다고 여기 대한 古典文語가 모든 文獻에서 一貫된 固有한 特徵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 規範的인 古典文學은 佛教關係의 木版本에서만 一貫性을 維持할 뿐, 여기 대한 手寫本이나 世俗文獻에서는 끊임 없이 方言의 影響을 받는다. 그러므로 17世紀初에 記錄된 것으로 생각되는 黃金史의 蒙古語의 特徵도 다음 두 가지 角度에서 考察되어야 한다. 첫째 先古典文語와 古典文語의 特徵, 둘째 口語의 要素로 集約할 수 있다. 具體的으로 말하면 先古典文語의 特徵이 어떻게 나타나며 規範的인 古典文語와 어떤 關係에 있으며 또 影響을 미친 方言的 要素와 그 方言이 大體로 어느 方言圈에 속하는 것인가를 보려는 것이다.

黃金史는 文語의 資料로서 重要な 것이지만 同時에 口語의 資料로도 貴重하다. 그만큼 黃金史는 口語의 影響을 받고 있다. 그러나 蒙文文獻에서 清朝의 殿本이나 外國學者들이 校正한 것은 그대로 嚴格한 研究資料로 使用할 수 없다. 그러므로 黃金史 研究에서도 위에 말한 研究를 위해서는 異本에 관한 考察이 앞서야 할 것이다. 元朝秘史는 아마 蒙古語를 모르는 中國人에 의해서 傳寫되었을 可能性이 크다. 따라서 그러한데서 비롯된 缺點도 있겠으나 또 反面 그 原形을 그만큼 忠實하게 維持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여기 대해서 黃金史와 같이 蒙文으로 記錄된 文獻은 大部分 蒙古人에 의해서 傳寫되었을 것으로 轉寫者는 自己도 모르는 사이에 自己가 理解하는대로 고쳐 썼을 可能性이 크다. 그러므로 本研究에서 異本에 관한 調査가 重要な 意義를 갖는다.

121. 19世紀初 北京에서 轉寫한 黃金史의 한 寫本을 Kazan 大學 教授인 喇嘛이며 Buryad 蒙古人인 Galsan Gomboev 가 校正하여 露語의 譯註를 달아 露西亞의 王室考古學會 東洋學部報 第六輯에 發表함으로써 비로서 黃金史가 歐羅巴學界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Trudy Vostochnago Otdeleniya Imperatorskago Arkheologicheskago Obshechestva Chast' Shestaya. Altan-Tobči. Mongol'skaya Letopis', b Podlinnom Tekste Perevod. Perevod lamy Galsana Gomboeva. Sanktpeterburg 1858.

그러나 뒤에 다시 說明하는 바와 같이 恣意的인 校正에 의해서 오히려 原文의 正確性이 적어졌고 또 그 譯文도 Vladimircov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正確하다고는 볼 수 없다.⁽¹⁾ 이것이 最初의 翻譯으로서 學界에 黃金史의 存在를 알린 功績은 否認할 수 없으나 그 翻譯에 許多한 問題

(1) On peut affirmer sans hésitation qu'une personne ne connaissant pas à fond la langue mongole et n'ayant pas accès, d'autre part, aux manuscrits adéquats, ne peut se servir ni de l'Histoire de Sanang-sacän traduite par I. J. Schmidt, ni de l'Altan tobči dans la traduction de G. Gomdoev: cett dernière, tout particulièrement, dénature complètement le text de l'Altan tobči. B. Vladimircov, *Le Régime Social des Mongols, le Féodalisme Nomade*, paris 1948, p. 15

를 內包하고 있어서 이미 開拓的인 價値 밖에 없다.

122. 그뒤 역시 Buryad 蒙古人인 C. Z. Zamcarano 가 그의 有名한 「17世紀 蒙古年代記」에서⁽²⁾ Gomboev의 몇몇 誤譯을 指摘한 바 있다. 그러나 Zamcarano의 研究도 露西亞에 있는 黃金史의 세 寫本을 紹介하고 여기 Gomboev의 몇 가지 誤譯에 言及했을 뿐, 黃金史 그 自體에 의한 研究가 아님은 勿論이다. 이렇듯 黃金史의 翻譯은 Buryad 蒙古人에 의해서 露西亞에서 시작되었으나, 그 뒤에는 日本 學者에 의한 翻譯이 나타난다.

123. 最初의 日本語譯은 山木 守가 「聖成吉思汗の家譜」라는 題目으로 發表한 一部譯이다. 이것은 全體量의 半에서 中斷된 것으로(蒙文書社 初版本 p. 62까지), 많은 誤譯이 있어서 거의 參考가 되지 않는다. 그뒤 小林高四郎의 「アルタヌ・トプチ(蒙古年代記)」가 出版되고(東京 1939) 다시 그 改訂版 「蒙古黃金史」가 出版되었다(東京 1941). 이 譯本들도 그것이 Gomboev以後 最初의 完譯本이라는데 意義가 있을 뿐, 誤譯도 많고 여러가지 缺點이 있다. 첫째 底本으로 正確性이 적은 蒙文書社 再版本을 使用했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誤譯을 犯하게 되었고 또 Gomboev의 不正確한 露譯에 너무 依持하여 難解한 語句에 대해서 無批判的으로 그에 따르거나 혹은 恣意的인 翻譯이 많기 때문에 正確한 譯本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全卷에 걸쳐 意味가 통하지 않는 譯文이 많이 나타난다. 이 譯本以後에도 特別한 研究가 發表되지 않았으며 또한 앞에 든 研究들도 現在로선 그다지 높이 評價될만한 것이 못되고 다른 外國學界에서도 별다른 研究가 없었다.

124. 그러던 中 近來 Bawden의 英譯을⁽³⁾ 보게 된 것은 黃金史 研究에

(2) C. Ž. Žamcarano, *The Mongol Chronicles of the Seventeenth Century*, Wiesbaden: 1955, pp. 38—43.

(3) C. R. Bawden, *The Mongol Chronicle Altan Tobči*, Wiesbaden 1955.

서 一大飛躍이라 하겠다. 特히 여러 異本을 對照하여 그 差異를 하나 하나 提示한 것은 異本對照의 수고를 덜어주어 便利하며, 그 以前의 많은 誤譯도 是正되어 있다. 그러나 그 譯文에도 역시 많은 誤譯과 앞으로의 解決을 기다리는 많은 問題들이 있다. 그 뿐만 아니라, Bawden은 序論에서 黃金史의 異本이나 編述年代에 관해서 論議하고 있으나 皮相的인 觀察이 많고 또 어느 部分은 小林高四郎의 改訂譯本 序文 以上을 넘지 못한다.

125. Bawden의 英譯本과 같은 해인 1955年 小澤重男의 「Altan Tobči 研究」가 出版되었다. ⁽⁴⁾ 이것도 Bawden과 같이 여러 異本을 對照했다는 점과 難解한 語句에 대해서 여러가지 角度에서 解決하려는 研究態度는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全體量의 3分之1 程度에서 中斷되고 또한 그의 翻譯도 從來의 水準에서 그다지 벗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126. 뒤에 說明하는 喀喇沁本 蒙古源流의 卷三・四가 黃金史의 一部에 該當하는 것이다. 藤岡勝二는 그 一部譯을 發表한 바 있다. ⁽⁵⁾ 그러나 그의 日本語譯은 汪國鈞 翔齊의 手寫 漢譯本을 利用한 것으로 생각되며 蒙文原文에서 直接 翻譯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127. 筆者는 몇 句節에 대한 새로운 解釋을 提示한 바 있으며 또한 「東亞文化」에 前半部의 翻譯을 發表한 바 있다. ⁽⁶⁾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從來의 研究는 全部 翻譯에 局限된 것으로서 本研究에서와 같은 言語學的 研究가 아니다. 따라서 本研究는 黃金史의 蒙古語에 관한 最初의 研究가 될 것이다.

(4) 小澤重男, Altan Tobči(黃金の史綴), 東京外國語大學論集別冊 3(1953), 4(1959)

(5) 藤岡勝二, 喀喇沁本 蒙古源流, 東京 1940.

(6) 拙稿, 蒙古黃金史一 몇 句節에 대한 새로운 解釋—(李相佰博士回甲紀念論叢 1954), p. 271—282; 黃金史研究, 1 (東亞文化 6輯 1966, pp. 123—163), 2 (東亞文化 10輯 1971, pp. 89—109).

128. 黃金史는 Vladimircov 의 蒙古封建社會制度 研究에서도 言及된 바 있다.⁽⁷⁾ 蒙古語學의 碩學 Vladimircov 는 斷片的이기는 하나 Gomboev 의 翻譯을 批判하면서 原文을 直接 引用하여 正確한 翻譯을 보여주기도 하며 또한 社會制度에 관한 用語를 說明한 바 있다. 또한 Mostaert 도 그의 元朝秘史 研究에서 黃金史에 言及한 바 있다⁽⁸⁾.

129. 元朝秘史에 比해서 黃金史의 研究가 從來 그다지 活潑하지 않았던 理由는 먼저 史料로서의 價値判斷에 基因하는 것으로도 생각되나 또한 語學的인 면에서도 元朝秘史보다 훨씬 後世의 資料라는데 原因이 있을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黃金史의 蒙古語는 그것더로의 研究價値가 있으며 또한 蒙古의 神話·說話 등 民俗學的 見地에서도 다시 評價되어야 할 것임은 再論의 必要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黃金史를 包含한 蒙文年代記가 近來 史料面에서 再評價되고 있음은 注目할만한 傾向이며⁽⁹⁾ 이러한 점에서 蒙文年代記의 研究에 앞으로 큰 發展이 이루어질 것으로 豫想된다.

131. 本研究에서 底本으로 利用한 蒙文書社 初版本의 影印本은 p. 129 에서 mongyol-un qad-un yabudal-i bariju, qad-un ündüsün-ü quriyangyui altan tobči nere-tü sudur tegüsbe (몽골의 汗들의 所行을 들고, 汗들의 源流·綱要라는 이름의 典籍이 끝났다)라는 語句로 黃金史가 끝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黃金史라고 부르는 部分이며 그 뒤 部分은 所謂「成吉思汗行軍記」(Činggis qaγan-i yabuγsan čireg-ün yabudal-un üiledel)라고 부르는 다른 部分이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도 앞 部分만이 研究對象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132. 黃金史는 成吉思汗의 遠祖를 印度와 西藏에서 찾으면서 그의 生

(7) B. Vladimircov, *op cit.*

(8) A. Mostaert, *Sur Quelques Passages de l'Histoire Secrète des Mongols*, Cambridge 1953.

(9) 岡田英弘, *ダヤン・ハガンの年代*, (東洋學報 48-3-4) 1965.

涯와 죽음에 관한 記述을 한 뒤 (pp. 1—49), 太宗(Ögetei qayan)부터 Lindan qutuγ-tu 可汗에 이르는 (pp. 49—126) 40代에 걸친 汗들의 記述이다.

前部分에서는 特히 成吉思汗의 生涯에 관한 蒙古의 說話와 佛教思想에 融合된 蒙古의 傳說이 얽혀서 記述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蒙古의 古傳說・說話・歌謠・史實 등이 서로 混合되어 佛教思想을 土臺로 編述된 黃金史는 特히 古代神話學에서 價値 있는 年代記이며 蒙古源流보다 純粹한 形態로 많은 神話와 說話를 包含하고 있다고 Laufer 는 말한다.⁽¹⁰⁾ 이러한 傾向은 비단 黃金史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옛 蒙文年代記에서도 나타난다. 여기 關係 Mostaert 는 Ordos 口碑集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Noire collection contient un certain nombre de sentence et dictionns qui sont d'un usage journalier chez les Ordos et se rencontrent déjà dans les anciennes chroniques.⁽¹¹⁾

우리가 이러한 事實에 留意하는 理由는 이들 說話・詩文・傳說 등이 口傳된 것이기 때문이다. 言語的인 면에서 口傳的 特徵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오래 口傳되어 繼承된 것 中에는 言語的 古形이 그대로 保存되어 있을 可能性이 많고 또 둘째로는 그와 反對로 方言的 要素가 反映되어 있기 때문이다. 筆者가 蒙古源流보다 黃金史에 보다 興味를 느끼는 理由가 바로 여기 있다. 特히 黃金史의 成吉思汗에 관한 前部分에 나타나는 說話 등은 그 起源이 元朝秘史 以前으로 遡及되는 것이 많다. 이러한 것들의 言語的 表現도 뒤에 다시 考察하는 바와 같이 그 記述이 大體로 規範的인 古典文語의 方向으로 統一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도 先古典文語의 古風的인 語法이나 表現이 그대로 保存되어 있는 것에 注

(10) 小林高四郎, 蒙古黃金史, 東京 1941, p. 8.

(11) A. Mostaert, *Textes Oraux Ordos*, Peking 1937, p. XV.

된다.

133. 黃金史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口傳된 傳説・歌謠・格言 등을 土臺로 여기 年代記를 엮은 것이다. 앞에서 筆者가 「論述」이라는 用語를 使用한 理由가 여기 있다. 이것은 黃金史가 著者의 獨創的인 作品이 라기보다는 많은 說話・傳説 등, 그것도 口傳된 것을 그대로 수집하여 엮은 것이기 때문에 「編述」이라는 用語를 使用했던 것이다. 이점 蒙古源流와 다르다. 蒙古源流는 黃金史에 比해서 보다 獨創的인 것이라 하겠다.

134. 蒙文史料의 가장 큰 缺點은 紀年上의 混同에 있다. 또한 黃金史에서 보는 바와 같이 傳説과 史實의 混同에도 起因한다. 이러한 缺點이 있음에도 近來 蒙古史學의 一部에서는 蒙文史料에 대한 새로운 價値設定을 하려는 傾向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現在 利用할 수 있는 蒙文史料(主로 年代記)에는 여러가지 種類가 있으며 各自 獨自的인 傳承을 包含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比較・分析함으로써 清代 撰出의 年代記의 根據가 된 明代의 史料의 內容을 어느 程度 復元할 수 있으며 또 그들 傳承을 無視하거나 故意로 歪曲하지 않고 그것을 適當히 解釋하여 漢文史料 中 만을 한 것과 比較하면 蒙文史料의 混同을 解釋하고 從來 不明이던 事實도 밝혀질 것으로 蒙文年代記도 蒙古史學에서 보다 活潑히 利用될 것으로 생각되나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言語學的 研究가 앞서야 할 것이다.

2. 異 本

211. 蒙文年代記에는 여러가지 種類가 있으며 그 어느 하나를 研究할 때는 다른 것들과의 相互比較가 要求된다. 黃金史도 그러한 一種인 것이다. 그러나 各年代記에는 實際로 共通된 部分이 많으면서도 또 一面

그것들이 記錄되던 條件과 歷史的인 背景으로 因하여 또한 差異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各 年代記의 歷史的 考察이 必要하게 된다.

212. 明末의 內蒙古는 左右 二翼으로 나누어지며 各翼에는 各各 三萬戶의 三國이 左右翼 合해서 六國이 있었으며 各國에는 各己 可汗이 있었음이 밝혀진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¹²⁾

右 翼	左 翼
Ordos 萬戶	Čaqar 萬戶
Tümed 萬戶	Qalqa 萬戶
Quračın 萬戶	Qorčın 萬戶

이 六國의 可汗은 Qoračın 萬戶를 除外하고는 全部 成吉思汗의 15世孫인 Dayan čečen qaγan(達延車臣汗)의 後裔이다. 右翼에서 現 Yeke jun(伊克昭)盟의 Ordos 萬戶는 右翼 親王(jinong)의 親部로서 諸王은 Dayan qaγan의 三男인 Barsubolad의 嫡統이며 代代 親王이라 일컬어졌다. Tümed 萬戶는 Ordos 東方 歸化城(Köke qota)을 中心으로 하는 地方이며 Barsubolad의 次男 Altan의 所封으로 代代 Gegen qaγan이라 일컬어졌다. Qaračın 萬戶는 Tümed의 東方 現 Čaqar(察哈爾), Sönid(薛尼特)兩部에서 灣河流域에 걸친 領域이며 諸王은 Barsubolad의 四男인 Bayasçal의 系統으로 Köndölen qaγan이라 일컬어졌다. 左翼의 Čaqar 萬戶는 Dayan qaγan의 長孫인 Bodi alay qaγan의 子孫의 所領이다. 內 Qalqa 萬戶도 역시 Dayan qaγan의 五男인 Aljubolad의 後裔들의 所領으로, 그들은 五部로 나누어져 其中 Jarud 部長이 代代 汗으로 일컬어졌다. 이와 같이 明代 內蒙古의 5國과 外蒙古(明末 外 Qalqa에 併立한 3可汗인 Jasaytu qaγan, Tüsiyetü qaγan, Čečen qaγan 들도 Dayan qaγan의 季子인 Geresanja의 血統이다)의 諸王은 모두 Dayan qaγan의 子孫인데 各國에는 各各

(12) 和田清, 東洋史研究(蒙古編).

많은 記錄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現在 볼 수 있는 蒙文年代記中 明代에 撰述된 것이 確實한 것은 Ordos의 成吉思汗의 靈廟인 이른바 八百室(nayiman čayan ger)의 祭祀의 起源을 說明한 Čayan teüke⁽¹³⁾ 뿐이다. 그러나 清代에 이르러 明代의 蒙文記錄에 依據해서 여러가지 年代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蒙文年代記는 各各 著者の 主觀的 見解와 判斷을 反映하며 內容上으로도 相互 尙尙한 差異가 있으나 그것들은 大體로 明代의 各 萬戶에 있어서의 記錄의 傳統을 保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歷史的 事實을 考慮하면서 各 蒙文年代記를 살펴보기로 한다.

(A) 먼저 Ordos의 年代記로서는 Ügüsün 部長인 Sayan sečen(皇太子) qong tayiji가 康熙 元年에 撰述한 Qad-un ündüsün-ü erdeni-yin tobči(帝王 根源寶貝史綱) 即 蒙古源流가 있다.⁽¹⁴⁾ 이것은 蒙文代記中 撰述年代가 가장 確實한 것이다.

(B) 다음에 Tümed의 年代記로 생각되는 것은 國師 Blo bzang bstan 'dzin kemegekü guusi 著인 Altan Tobči kemegekü šastir(黃金史綱), Altan tobči nova라고 부르는 것이다. 1952年 美國 Harvard 大學의 Yeching Institute에서 影印本으로 出版된 것이 바로 이 Altan tobči nova이다.⁽¹⁵⁾ 編書年代는 確實하지 않으나 大體로 順治 12年(1655)頃 또는 1765年頃으로 蒙古源流와 가까운 時代의 著作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內容面으로

(13) W. Heissig, *Die Familien- und Kirchengeschichtsschreibung der Mongolen*, 1., 16—18. Jahrhundert, Wiesbaden 1959, pp. 17—26; Facsimilia, pp. 1—25.

(14) (Urga 本) E. Haenisch, *Eine Urga-Handschrift des mongolischen Geschichtswerks van Secen Sagang (alias Sanang Secen)*, Berlin 1955; (殿文) E. Haenisch, *Der Ki-enlung-Druck des mongolischen Geschichtswerkes Erdeni yin Tobči von Sagang Secen*, Wiesbaden 1959; (Schmidt 本) I. J. Schmidt, *Geschichte der Ost-mongolen und ihres Fürstenhauses, verfasst von Ssanang Ssetsen Chungtaidschi der Ordus*, St. Petersburg-Leipzig 1829; (Ordos 本) A. Mostaert & F.W. Cleaves (ed.), *Erdeni-yin Tobči, Mongolian Chronicle by Sařang Sečen*, Cambridge 1956

(15) A. Mostaert & F.W. Cleaves (ed.), *Altan Tobči, A Brief History of the Mongols* 1952.

본다면 記事나 年代가 蒙古源流와 相異한 것이 많고 蒙古源流 아닌 다른 史料에 立脚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Altan tobči nova 와 가장 가까운 關係에 있는 것이 本研究의 對象인 우리가 普通 黃金史(Altan tobči)라고 부르는 것이며 아마 여기 의해서 Altan tobči nova 가 成立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 관해서는 뒤에 異本에 관한 章에서 다시 言及될 것이다.

(c) Qaračin 系의 年代記는 雍正 13年 鑲紅旗蒙古都統 羅密(Lomi)撰의 Mongγol borjigid oboγ-un teūke 가 있다. 이것은 元來 滿洲語로 記錄된 것인데 現在 볼 수 있는 것은 道光 19年(1837) 3年 15日附의 蒙古語譯⁽¹⁶⁾과 民國 23年(1934)에 張爾田이 刊行한 「蒙古世系譜」⁽¹⁷⁾라는 漢譯本 뿐이다. 內容은 Altan tobči 와 共通된 部分이 많으나 紀年은 오히려 蒙古源流에 가깝다.

(D) 左翼의 年代記로 Čaqar 에 관한 것은 「angga-yin urusqal 이다.⁽¹⁸⁾ 이것은 雍正 3年(1725) Üjümüčin (鳥珠穆沁) 右翼旗 札薩克和碩車臣親王 察罕巴拜(Čayan babai)의 孫인 Gombojab 가 撰述한 것으로 그 內容은 가장 簡單하지만 紀年과 또한 그 內容이 獨自的이다.

(E) 內 Qalqa 의 年代記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Altan kürdün mingyan kegesütü (金輪一輻)로서 Ĵarud 部の Siregetü guusi (國師) dharma 가 乾隆 4年(1739)에 撰述한 것이며⁽¹⁹⁾ 또 하나는 Bolor erike 로서 巴林 (Bayarin) 部の Rasipungsuγ 이 乾隆 40年(1775)에 撰한 것이다.⁽²⁰⁾ 이 兩書는 記事內容이나 紀年이 「angga-yin urusqal 과 共通된 部分이 많다.

(16) W. Heissig & C.R. Bawden (ed.), *Mongγol Borjigid Oboγ-un Teūke vom Lomi* (1732), Wiesbaden 1957.

(17) *Ibid.* pp. 95—123

(18) Gombodzhab, *Ganga-īn Uruskhal*, Moskva 1960.

(19) W. Heissig, *Altan kürdün mingyan Gegesütü Bičig. Eine mongolische Chronik von Siregetü Guosi Dharma* (1739), Kopenhagen 1958.

(20) A. Mostaert & F.W. Cleaves, *Bolor Erike, Mongolian Chronicle by Rasipungsuγ*, Cambridge 1959.

(F) 外 Qarqa 의 史書로 가장 오래 것은 Bayamba erke dayičing 即 喀爾喀의 信順厄爾克戴青諾顏善巴가 康熙 16年(1677)에 著述한 Asaraγči neretü teüke 이다. ⁽²¹⁾ 이밖에 撰人・年代 未詳의 Ĵalaγus-un qurim 이 있으며 ⁽²²⁾ 이것은 前記 Asaraγči neretü teüke 에서 引用한 部分이 많으나 內容과 紀年은 Ordos 의 蒙古源流에 가깝다. 이 Ĵalaγus-un qurim 에 많은 補充部分이 添加된 것이 無名氏撰의 Sira tuyuǰi 이다. ⁽²³⁾

以上 蒙古年代記를 大略 살펴보았거니와 여기서 우리는 黃金史의 位置를 大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221. 黃金史에는 몇 가지 異本이 있다. 蒙文書社 初版本: 北京 蒙文書社(mongγol bičig-un qoriya)에서 出版된 Tegmetü 編 Činggis qaran-u čadig(1925)이다. Tegmetü 는 Qaračin 蒙古人으로 蒙文書社의 設立者이며 中國名은 王濬昌이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總 196面의 全文中 126面까지가 黃金史이며 그 뒤 部分은 著者と 年代未詳의 所謂「成吉思汗行軍記」이다. 이 蒙文書社 初版本이 黃金史의 몇 가지 異本中에서 가장 原形을 잘 維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蒙文書社 初版本의 影印本: 위의 初版本의 影印本이 1940年 北京에서 刊行되었다. 書名은 「蒙文 蒙古史記」(英文으로는 Mongol Chronicle, Cinggis qaran-u cidig, including Altan Tobci)이며 本研究에서는 이 影印本을 底本으로 使用했다.

蒙文書社 再版本: 蒙文書社에서 1925年 再版本이 刊行된다. 이것 역시 Tegmetü 編으로 筆者는 未見이나 服部四郎에 의하면 ⁽²⁴⁾ Tegmetü 의 改訂序文이 있다고 한다. 再版本은 初版本과 많은 差異가 있다. 그 差異는 Tegmetü 의 改訂에 의한 것으로 初版本의 難解한 語句이나 또는

(21) Bayamba, *Asaraγči neretü teüke*, Ulaan-baatar 1960.

(22) W. Heissing, *Geschichtschreibung, Facsimilia*, pp. 86—111.

(23) N. P. Shastina, *Shara Tudzhi. Mongol'skia letopis' XVII*, Moskva-Leningrad 1957.

(24) 藤岡勝二, *op. cit.*, p.

意味不明의 낱말들을 任意로 고친 部分이 많아서 初版本에 비해 正確性이 적다. 小林高四郎이나 山本 守의 日本語譯은 바로 이 再版本을 底本으로 한 것이다.

223. Gomboev 本 : Zamcarano 가 든 Manuscript A.B.C. 에서 B 에 의한 것이 Gomboev 本이다. 이것도 Gomboev 에 의해서 恣意的으로 改訂한 곳이 많다. 그러므로 蒙文書社 初版本과의 比較에 의해서 다시 修正된 部分이 많으며 Vladimircov 는 그러한 좋은 例를 보여주고 있다.⁽²⁵⁾ Gomboev 本(p. 81)에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 Moolan qayan-u čerig-ün kümün oyirad mu'uliqai-du kele kürgebe(모란汗의 한 戰士는 오이랄의 무리하이에게 通報했다). 여기 의하면 mu'uliqai 가 마치 oyirad 部인 것처럼 돼 있다. 이 Gomboev 本에 의해서 어느 蒙古史學者는 mu'uliqai 를 oyirad 로 보기도 했다. 여기 대한 蒙文書社 初版本의 該當句節을 보면, molon qayan-i čerig-ün kümün-i üjeged. moquliqai ong-dur kele kürgebe(모론可汗의 軍士를 보고, 모후리하이 옹에게 通報했다)와 같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Gomboev 本の oyirad 는 初版本의 üjeged 를 고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moquliqai ong 이 oyirad 가 아님은 再論의 餘地도 없다. 이것은 蒙古史의 文獻이 얼마나 研究 不充分하고 그릇된 說이 無批判的으로 踏襲된 좋은 例라 하겠다. Altan tobči 의 蒙文原文도 學識 있는 喇嘛僧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오히려 잘못 改訂되었으며 또한 蒙文書社 版도 더 眞摯하게 調査된바 없다.

224. 喀喇沁本 : 日本東洋文庫 所藏「喀喇沁本 蒙語源流」는 卷一・二가 蒙語源流의 前부와 同一하고 卷三・四是 蒙文書社本 黃金史의 後半부와 同一하며 이 兩部分을 連絡하는 句節 몇 行이 插入되어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이 喀喇沁本 蒙古源流는 蒙古源流의 一部와 黃金史의 一部 그리고 成吉思汗行軍記를 包含하고 있다. 東洋文庫의 「喀喇沁本 蒙古源流」

(25) B. Vladimircov, *op. cit.*, p. 20.

最後에 「大正 7年 6月 23日 蒙古漠南喇喀沁右翼旗 綏齊汪國鈞譯」이라는 記錄이 있고 蒙古文 右側에 汪國鈞의 漢譯이 併記되어 있다. 이 蒙文을 羅馬字로 轉寫하고 汪國鈞의 漢譯을 主로하여 日本語譯한 것이 藤岡勝二의 日本語對譯 喀喇沁本 蒙古源流이다.

225. 德王府本: 위에 든 異本들은 이미 學界에 그 存在가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最近 日本學者 江實가 張家口에서 入手했다는 새로운 異本の 하나가 簡單히 紹介된 바 있다.⁽²⁶⁾ 江實은 이것을 德王府本이라고 부르고 있다. 筆者는 아직 未見이라 그 內容에 관해서 具體적으로 論議할 수 없으나 大略 다음과 같은 特色이 있는 것 같다.

A) Čaqar 蒙古語에서는 어느 경우 o와 u를 二重으로 oo, uu와 같이 쓰는 習慣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地域의 그것과 對照的이다. 이점 德王府本과 蒙文書社 再版本이 類似하며 다른 異本들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한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德王府本	uuγuba (마셨다)	maγuuqai (나쁜)
蒙文·再版本	uuγuba	maγuuqai
蒙文·初版本	uγuba	maγuqai
Gomboev 本	uγuba	maγuqai

B) 蒙古에서는 母音間의 -g-와 -k-를 區別하기 위해서 -g-를 二重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德王府本	negegeyu (열고)
蒙文·初版本	negeyu

C) 語頭에서 母音을 介入하지 않고 子音이 두개 계속되는 것은 古風的인 것으로 알려진 것인데, 德王府本에 다음과 같은 例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例가 蒙文書社 初版本에도 나타나는 것은 뒤에 알게 될 것이다.

(26) 江實, Altan Tobči について,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 2, 1969, pp. 197—213.

Ĵryuyan(6)

Ĵrliy(聖旨)

sdkinem(생각한다)

黃金史는 通說과 같이 內蒙古에서 編述된 것이기에 그 異本들도 위와 같은 特徵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점에서 江實은 德王府本이 黃金史의 Text로서 가장 適當하고 蒙文書社 再版本이 다음 가며 다른 異本들에는 內蒙古 以外の 要素가 混入되어 있어서 위에 든 特色을 消失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見解는 一面의 眞理는 있어도 皮相的인 判斷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좀 더 全面的인 言語的 特徵이 綜合的으로 考察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德王府本이라는 것도 어떤 異本을 Čaqar 사람이 그 地方의 言語的 特徵에 따라서 고쳐 썼을 可能性도 있기 때문이다. 要는 여러 異本들 가운데서 어느 것이 最初의 原形을 가장 忠實하게 維持하고 있는가에 問題가 있다.

226. Altan tobči nova : 이것은 § 212에서 본바와 같이 Harvard-Yenching Institute에서 刊行한 影印本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다. 우리의 黃金史와 이 Altan tobči nova와의 關係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見解가 提示된 바 있다. 첫째 Poppe에 의하면 兩者間에는 共通的 部分이 없다고 한다(N. Poppe, Stand und Aufgaben der Mongolistik, ZDMG 100, NF 25, 1950, p. 69). 그러나 이것은 잘못 본 것으로 우리들의 黃金史의 大部分이 Altan tobči nova에 그대로 나타난다. 다만 이야기의 順序가 다를 뿐이다. 따라서 兩者間에는 密接한 關係가 있다. 一般的으로는 Altan tobči nova의 著述年代가 우리의 黃金史보다 늦어 前者가 後者를 引用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最近 前者가 오히려 後者보다 앞선 것으로 보는 見解가 發表된 바 있으나 여기 관해서는 黃金史의 編述年代에 관한 다음 章에서 다시 言及될 것이다.

231. Gomboev 본과 蒙文書社本 사이에 커다란 세가지 差異가 있는 것에 注目된다. 그것은 Gomboev 본에는 없는 句節이 세군데 蒙文書社本에 나타나는 것이다.

A) 蒙文書社 初版本 pp. 5—7 에 걸친 成吉思汗에서 Burni 汗에 이르는 諸汗의 系譜가 Gomboev 본에는 없다. 이것은 黃金史의 年代를 推定하는데 있어서 重要な 句節이다.

B) 蒙文社 初版本(p. 19) Ögetei eke 에서 (p. 21) iregsen-ü qoyina 에 걸친 句節이 Gomboev 본에는 없다.

C) 蒙文社 初版本(pp. 125—126)에 Lindan 汗 統治時의 宗教的 活動에 관한 句節이 Gomboev 본에는 없다.

여기 관해서는 다음 章에서 仔細히 考察하기로 하겠으나, 여기에서는 다만 이러한 差異가 다음과 같은 重要的 事實을 暗示한다는 點만을 指摘해 둔다. 現在 볼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異本만으로는 어느 것이 黃金史의 原形에 가까운 것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위에 말한 Gomboev 본에 없는 句節은 後世에 누군가에 의해서 蒙文社本이 原本에 插入된 것이 確實하다. 그것도 前後關係를 잘 考慮하지 않고 잘못 插入된 것이 確實하다. 여기 관해서는 다음 章에서 다시 考察하겠으나, 이러한 事實로 보아 一應 Gomboev 본이 蒙文書社本보다 原形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現在 우리가 볼 수 있는 Gomboev 본은 Gomboev 의 恣意的 改訂에 의한 것으로 오히려 蒙文書社 初版本보다 正確성이 적은 것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Gomboev 本の 基礎가 된 寫本이 (즉 Zamcarano 가 말하는 MS. B) 가장 原形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바이다. 現在 우리가 이 寫本을 볼 수 없음은 遺憾이나 그 寫本이 지금까지 保存되어 있다면 여기 의한 考證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3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蒙文書社 再版本은 初版本에 修正을 加한 것이며 또 Gomboev 본도 Gomboev 의 많은 修正을 받은 것이다. 版本을

서로 對照해 보면 特히 위에서 본 例와 같이 Gomboev 本에서 恣意的인 改訂이 가장 甚하고 蒙文書社 初版本이 가장 原形에 가까운 形態를 維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初版本에 難解한 句節이나 訛謬 또는 方言形이 많이 露出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까닭이다.

3. 編述年代

311. 黃金史는 成吉思汗부터 Lindan 汗에 이르는 40代에 걸친 系譜이다. 그러므로 그 系譜中 最後에 登場하는 Lindan 汗(1604—1634)을 基準으로 그 編述年代를 決定하려는 最初의 見解가 提示된 바 있다. 이것은 Gomboev 本에 붙인 Savel'ev 의 序文에서 提示된 것으로 그는 編述年代를 1604年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1604年說이 한동안 아무 批評 없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1604年은 너무도 無謀한 判斷이다.

312. 이 Savel'ev 의 說에 反對하는 學者가 곧 L. Ligeti 이다.⁽²⁷⁾ 前章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Gomboev 本에는 없고 蒙文書社本에 나타나는 句節이 있는데 그中 明의 諸皇帝를 列擧한 句節이 있다. 이것은 永樂帝에서 天啓帝까지의 系譜를 든 것인데 天啓帝의 在位期間이 1621—1627年이다. 여기 의해서 黃金史의 編述年代를 1630年前 後로 보았다.⁽²⁸⁾ 그러나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이 推定은 明白한 過誤다.

313. 역시 Gomboev 本에는 보이지 않은 句節이 蒙文書社本에 있다. 그것은 成吉思汗에서 Burni 汗에 이르는 系譜인데 Burni 汗의 生年이 1651年이다. 그러므로 Heissig 에 의하면⁽²⁹⁾ 이 句節이 들어 있는 蒙文書社本

(27) L. Ligeti, *Les noms mongols de Wen-tsong des Yuan*, T'oung-Pao, II^e série, vol. 27, 1930, pp. 57—61.

(28) 小林高四郎, 蒙古黃金史, 東京 1941, p. 19.

(29) W. Hessing, *Glosses on Recent Mongol Studies*, *Studia Orientalia* 19, 4, Helsinki 1953, p. 7, footnot.

은 最古 1651年을 넘을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勿論 蒙文書社本에는 該當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最初의 黃金史의 編述年代를 밝힌 것은 아니다.

Čaqar 의 Burni 가 原文에 의하면 Burni čing wang 즉 Burni 親王으로 記錄되고 있는데, Burni 가 그의 아터지인 Abnai 에게서 親王의 稱號를 받은 것이 康熙 8年 즉 1669年이다. 그러기에 黃金史의 成立을 1669年 或은 Burni 가 죽은 1675年 以後로 斷定하는 說이 있다.⁽³⁰⁾ 그러나 이런 推定도 뒤에 보는 바와 같이 正確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321. 다음에는 먼저 1630年說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이 說의 根據가 된 句節은 Gomboev 本에는 없는 것으로 그 該當句節을 蒙文書社 初版本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59] tegün-ü qoyina qorin yisün nasun-dur-ıyan dörben on bolju. noqai jil-düring čing bu nere-tü qotan-du tengri bolboa...[60].....[61].....yungloqayan ručın qoyar jil bolju tengri bolba. qungsi [62] qayan nigen jil saγuba santa qayan arban jil saγuba. jingtung qayan arban dörben jil saγuba. jingtai arban tabun jil saγuba: čingquua qayan γurban jil saγuba. qunwangči arban naiman jil saγuba. jingta arban jirγuyan jil saγuba. jiting qayan döčin jirγuyan saγuba. lungčın qayan jirγuyan jil saγuba. wali qayan döčin jirγuyan jil saγuba. tawasan qayan nigen sara saγuba. dayiming čuu tinči qayan qorin jirγuyan jil saγuba. qungquua qayan-ača inaysi tinči qayan kürtele qoyar jaγun tabin doluyan on saγuba: toqon temür, qayan-u köbegün bilig-tü qayan mōn on noqai jil-düring čing nere-tü qotan-dur yeke oro saγuba :
 [譯] [59]그 뒤 29才에 4年이 지나서 계(犬) 해에(庚戌 1370) 應昌府라는 이름의 城에서 昇天했다.[60].....[61]
 [永樂帝는 22年이 되어서 昇天했다. 洪熙帝는 1年 在位했다.
 宜德帝는 10年 在位했다.
 正統帝는 14年 在位했다.

(30) 岡田英弘, 東京外國語大學 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通信」第3號, 1967, 11, p. 19.

景泰帝는 15年 在位했다.

成化帝는 23年 在位했다.

弘治帝는 18年 在位했다.

正德帝는 16年 在位했다.

嘉靖帝는 46年 在位했다.

隆慶帝는 6年 在位했다.

萬曆帝는 46年 在位했다.

泰昌帝는 1(個)月 在位했다.

大明 天啓帝는 26年 在位했다.

洪武帝부터 天啓帝까지 257年 在位했다]

토혼 테물可汗(順帝)의 아들 照帝는 同年 개해에 (庚戌年 1370) 應昌이라는 都城에서 大位에 올랐다. (原文中 伊太利體로 된 部分과 譯文中 괄호 속에 넣은 部分은 Gomboev 本에 없는 句節이다).

위의 句節은 所謂 順帝悲歌가 끝난 다음 繼續되는 것으로 toqon temür qayan 即 順帝가 庚戌年(1370) 應昌府라는 城에서 昇天했음을 記述한다. 그 다음에는 Gomboev 本에 없는 即 插入된 部分이 시작된다. 洪武皇帝에는 두 妃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漢人이요 또 한 사람은 蒙古人이었다. 그리고 漢人皇后에서 태어난 建文帝가 即位한 뒤 4년이 되어 蒙古人의 妃에서 태어난 아들이 建文帝를 追放하고 即位한다. 그가 바로 永樂帝이며 여기서 大明의 諸帝의 系譜가 시작한다고 記述하고 있다. 그런데 이 系譜가 끝난 다음 곧 그 위에 나온 順帝의 아들 照帝가 「同年」에 應昌府라는 都城에서 大位에 올랐다고 記錄하고 있다. 이 句節의 「同年」이란 함은 大明諸帝의 系譜 앞에 있는 「그뒤 29歲에 4년이 지나서 개해에 應昌府라는 이름의 城에서 昇天했다」라는 句節中 「개해」와 連結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順帝가 昇天한 개해 即 庚戌年(1370)에 順帝의 아들 照帝가 汗位를 繼承하는 것이다. 이렇게 連結되어야 할 文章을 잘못 分斷하여 그 사이에 大明의 諸帝系譜가 어색하게 插入되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同年」은 當然히 그 系譜를 넘어서 앞 部分의 개해와 連結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不自然스런 連絡關係를 보면 이것이 後世의 挿入임이 確實하다. 그러므로 大明의 諸帝系譜中 最後에 나오는 天啓帝 (1621—1627)의 在位期間을 基準으로 해서 黃金史의 編述年代를 推定한다는 것은 잘못임을 알 수 있다.

322. 다음에는 Burni 親王을 基準으로 한 推定을 考察하기로 한다. 여기서도 Gomboev 本에 없고 蒙文書社本에만 보이는 句節이 問題가 된다. 다음에 그 原文을 보기로 하나 여기서도 伊太利體로 된 部分이 Gomboev 本에 없는 部分이다.

[5]tegün-ü köbegün toraqalčïn bayan. boroyčïn ɣooa gergei aǰuɣu. mongɣol-un qad-un degedü inu eng terigün činggis qaɣan. tegün-ü köbegün ögedei qaɣan. tegün-ü degüü inu külüg qaɣan. tegün-ü degüü inu möngke qaɣan. tegün-ü degüü inu qoyina öljei-tü qaɣan. tegün-ü köbegün külüg qaɣan. tegün-ü köbegün buyan-tu qaɣan. tegün-ü köbegün gegen qaɣan. tegün-ü köbegün. yisün temür qaɣan. tegün-ü qoyina ǰayaɣa-tu qaɣan. tegün-ü qoyina qutuɣ-tu qaɣan. tegün-ü qoyina ayiǰamal qaɣan. tegün-ü qoyina uqaɣa-tu qaɣan. tegün-ü köbegün bilig-tü qaɣan. tegün-ü köbegün usqal qaɣan. tegün-ü köbegün ǰorij qaɣan. tegün-ü köbegün elbeg qaɣan. tegün-ü qoyina oyirad-un batula čingsang mongɣol-un törü-yi abuba: tegün-ü qoyina toquyan qaɣan. tegün-ü qoyina ului temür qaɣan. tegün-ü qoyina dalbaɣ [6] qaɣan. tegün-ü qoyina oyaradai qaɣan. tegün-ü qoyina adai qaɣan. tegün-ü qoyina mongɣol-un törü-yi oyirad-un toqan tayisi abuba: tegün-ü qoyina tayisung qaɣan. basa mongɣol-un törü-yi oyirad-un esen tayisi abuba. tegün-ü qoyina maqa kürkis qaɣan. tegün-ü qoyina moolon qaɣan. tegün-ü qoyina manduquli qaɣan. tegün-ü qoyina bayan mönke bolqu ǰinong. tegün-ü köbegün bata möngke sayin dayun qaɣan. tegün-ü köbegün darayisung küdeng qaɣan. tegün-ü qoyina barsu bolod ǰinong-yin köbegün gegen altan qaɣan. tegün-ü qoyina tümen ǰasaɣtu qaɣan. tegün-ü qoyina buyan sečin qaɣan. tegün-ü qoyina sengge temür düürüeng qaɣan. tegün-ü köbegün-ü sümir mergen tayiji. tegün-ü köbegün dalai blama-yin qubilɣan yontang yamso. tegün-ü qoyina buyan sečin qaɣan. tegün-ü degüü inu mangqus mergen tayiji. tegün-ü

köbegün lından qutuγ-tu qaγan. tegün-ü köbegün erke qonggor tayıǵı. tegün-ü degüü inu abanai čing wang. tegün-ü [7] köbegün burani čing wang : döcin qoyadıγar üye. dün(G duwa) soqor dobu mergen qoyar köbegün-tei buyu.

[譯] [5]그의 아들은 토라할친 바얀[이고], 보록친 고오아라는 쫓가 있었다. 【몽골의 왕들의 先祖인 最初는 成吉思可汗, 그의 아들은 외게데이可汗, 그의 아우는 큐룩可汗, 그의 아우는 케케可汗, 그의 아우는 호비라이可汗 그의 아우는 뒤에 일제이투可汗, 그의 아들은 큐룩可汗, 그의 아들은 부안투可汗, 그의 아들은 계겐可汗, 그의 아들은 이순 테물可汗, 그의 뒤는 자야가투 可汗, 그의 뒤는 후투투可汗, 그의 뒤는 아이자말可汗, 그의 뒤는 우하가투可汗, 그의 뒤는 비릭투可汗, 그의 아들은 우스할可汗, 그의 아들은 조릭투可汗, 그의 아들은 엘벡可汗, 그의 뒤는 오이랄의 바투라 칭상이 몽골의 政事를 잡았다. 그의 뒤는 토후간可汗, 그의 뒤는 우루이 테물可汗, 그의 뒤는 달박可汗, [6] 그의 뒤는 오야라타이可汗, 그의 뒤는 아다이可汗, 그의 뒤는 몽골의 政事를 오이랄의 토한 타이시가 잡았다. 그의 뒤는 타이승可汗, 또 몽골의 政事를 오이랄의 예센 타이시가 잡았다. 그의 뒤는 마하 쿨키소可汗, 그의 뒤는 모오론可汗, 그의 뒤는 만두후리可汗, 그의 뒤는 바얀 링케 지능, 그의 아들은 바타링케 사인 다운可汗, 그의 뒤 孫子는 보디 아락可汗, 그의 아들은 다라이승 큐뎡可汗, 그의 뒤는 발수 보롬 지능의 아들 계겐 알탄可汗, 그의 뒤는 류멘 자삭투可汗, 그의 뒤는 부안 세친可汗, 그의 뒤는 생게 테물 듀류렝可汗, 그의 아들은 슈밀 멜겐 타이시, 그의 아들은 다라이 라마의 후빌간 윤당 잠주, 그의 뒤는 부안 세친可汗, 그의 아우는 망구스 멜겐 타이시, 그의 아들은 린단 후투투可汗, 그의 아들은 엘케 훙출 타이시, 그의 아우는 아바나이 親王, 그의 [7] 아들은 부라니親王 第四十二代이다】 두와 소홀[과] 도부 멜겐 두 아들이 있었다.

여기서 原文대로 解釋한다면 (끝行)Burani 親王의 아들로 Duwa soqor 과 Dobu mergen 이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歴史的으로 보아 Burani 親王 에는 이러한 아들이 없고 Duwa Soqor 과 Dobu mergen 은 Toraqalčın balyan 의 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Toraqalčın 의 이름이 위에 引用한 原文 에서 첫 줄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理論上 다음과 같이 文章이 連結 되어야 한다.

tegün-ü köbegün toraqačın bayan. boračın ɣooa gergei-tei ajuɣu. [] dün
(G. duwa) soqor dobu mergen qoyar köbegün-tei buyu. (그의 아들은 토라할
친 바얀[이고], 보록친 고오아라는 妻가 있었다. [] [그리고] 두와 소
홀[과] 도부 멜겐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連結되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 로 表示한 部分에 다른 系譜의 句節이 들어 있는 것은 틀림없이 앞과 뒤를 嚴密히 考慮하지 않은 後世의 插入이 確實하다. 그러므로 이 後世에 插入된 句節에 의해서 黃金史의 編述年代를 決定한다는 것은 許容될 수 없다. 따라서 Burani 親王의 「親王」에 의한 1669年 혹은 1675年 以後로 보는 說은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323.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從來의 年代推定이 插入된 句節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고 또 이러한 推定이 理論上 許容될 수 없는 것도 알 수 있다. 다만 이 두 句節이 同時에 插入되었는지 二회에 걸쳐 따로 따로 插入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黃金史의 最初의 年代는 적어도 위에 든 두 插入句節에 나타나는 內容의 以前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筆者는 黃金史의 年代를 Lindan 汗의 生年인 1604年을 上限線으로 하고 또 위에 본 두 插入된 句節中 年代的으로 앞선 1630年前後를 下限線으로 잡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黃金史는 크게 1604年—1630年 사이에 編述된 것으로 보게 된다.

4. 言語的 特徵

(1) 音韻的 特徵

411. 蒙古語의 音韻變化에서 가장 特徵的인 것中 하나가 $-Vɣ/gV \rightarrow -V$
 $V \rightarrow -\bar{V}$ 와 같은 母音間의 $-ɣ/g-$ 의 消滅과 前後母音의 長母音化임은 周知의 事實이다. 또 이 變化過程이 各各 古代蒙古語, 中期蒙古語, 現代

蒙古語에 該當하는 것임도 再論의 必要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점 文語는 이 過程中 古代蒙古語에 該當한다. 우리의 黃金史(以下 蒙文書社 初版本)에서는 거의 完全히 古典文語에서처럼 -γ/g-를 維持하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는 가장 忠實히 古典文語의 特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몇가지 脫落例가 보인다. (以下 괄호 속의 數字는 原文 page 를 表示함)

silüsü(170)[들 고양이], Mo. silügüsüin

enderigül-(95)[잘못하게 하다], Mo. endegüregül-

412. 위와 같은 例는 黃金史에서 稀少하지만 다음에 드는 例는 자못 興味를 끈다.

1. öndür boluysan törü čin-u boyonidum-ja.
2. önide batuda uçaraysan bortekeļjin čičin qatun čin-u ükün-ja.
3. ögedei tülui qoyar čin-u önöčidüm-ja.
4. örisün jögegsen olan ulus čin-u öbere kümün-ei bolun tarqam-ja.
5. *aγula* boluysan törü čin-u boyonidum-ja.
6. olju tokiysan bortekeļjin čičin qatun čin-u üküm-ja.
7. očoqu qačuqu qoyar čin-u bölügedüm-ja.
8. olana jögegsen olan ulus čin-u aγula tayiγa buri tarqam-ja.

[譯]

1. 高대한 당신의 政統은 衰低하리라.
2. 永遠히 굳게 만난 당신의 빌테케ļ진 치친王妃는 죽으리라.
3. 당신의 외게데이 튜류이 두(아들은) 孤兒가 되리라.
4. 곧 당신의 모든 많은 人民은 다른 사람 것이 되어서 흩어지리라.
5. 山(같이 된) 당신의 政統은 衰低하리라.
6. 얼어 名譽로운 빌테케ļ진 치친王妃는 죽으리라.
7. 당신의 오추후, 하추후 들이는 서로 싸우리라.
8. 당신의 많이 모인 人民은 山과 숲을 넘어서 흩어지리라.

위에 引用한 原文은 詩文의 一節인데,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1—4, 5—8에서 各各 ö-, 와 o-로 頭韻을 밟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5行의 *aγula* 는 頭韻 면에서 보아 3段階인 \bar{V} 의 實際發音을 反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問題는 *aju-*가 *ū-*인지 *ō-*인지는 速斷을 不許한다. 왜냐하면 方言에서 *aju-*의 一般的인 變化方向은 *ū-*이지만, 위에 引用한 原文의 前後에 있는 句節들도 다같이 四行이 整然히 頭韻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ū-*로 發音되었을 可能性이 있다. 이것은 *aju-*의 變化에 있어서 잘못 興味 있는 問題이다.

413. 黃金史 全卷을 통해서 가장 顯著히 나타나는 特徵으로 다음과 같은 例를 볼 수 있다.

- ĵiyaya-tu*(14), Mo. *ĵayaya-tu* 天命으로
üĵi-(19, 63, 85), Mo. *üĵe-* 보다.
usin(64), Mo. *usun* 水
öriyesün(49), Mo. *öreyesün* 환쪽
ügin(54), Mo. *üge(n)* 말
ičibe(81), Mo. *ečibe* 왔다.
aĵiyu(16), Mo. *aĵuyu* (a-의 third past.)
čačir (94), Mo. *čačar*, 慕舍
biyu(17), Mo. *buyu* (*bui*의 interrogative form)
čireg(35, 55, 56, 61, 66, 73, 74), Mo. *cerig* 軍士
sigilgebei(95), Mo. *sigelgebei* 오줌누혔다.
nigin(77), Mo. *nigen* 하나
qoriči-(63), Mo. *qoriča-* (色慾에) 빠지다

이런 例는 주로 a/e, u 등의 i 變化라 하겠는데, 分詞 *či*(25, Mo. *ču*)나 또는 其他 文法形態素에서도 나타난다 : *bolbači*(38, Mo. *bolbaču*), *kelelčibe*(67, Mo. *kelelčebe*). 이러한 變化와 꼭 같은 例가 Ordos 本 蒙古源流에도 나타난다. Mostaert는 이것을 Ordos 方言의 實際發音을 反映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例를 들었다. ⁽³¹⁾

L'orthographe de plusieurs mots reflète la prononciation ordos. ⁽¹⁾ Ainsi on a *üĵi*-“voir”, *eĵin* “seigneur”, *sečim* “sage”, etc., pour *üĵe-*, *eĵen*, *sečen*, etc.; ⁽²⁾

(31) A. Mostaert & F. W. Cleaves, *Erdeni-yin Tobči, Mongolian Chronicle by Saγang Sečen*, Part. 1, p. 66.

beči- “écrire”, ergen “tournant”, aǰary-a “étalon”, ect., pour biči-, ergin, aǰiry-a,
etc

이 例에서 ②에 該當하는 現象이 우리의 黃金史에서도 나타난다.

teǰege-(14), Mo. teǰige- 養育하다

učara-(35), Mo. učira- 취다

eče-(83), Mo. eči- 가다

黃金史에 나타나는 이러한 例들은 Ordos 方言의 特徵과 同一한 것으로서 注目된다. 이 事實은 黃金史에 미친 方言의 影響을 推定하는데 있어서 자못 暗示的인 것임을 附言해 둔다. 大體로 黃金史는 蒙古源流보다 方言의 影響을 더 많이 받고 있다. (32)

414. öbülči-(57, 58), Mo. ebülči- 越冬하다

이것은 öbül-či-로 形成된 denominal verb로서 여기서 問題가 되는 것은 öbül(冬)의 語頭母音 ö이다. 여기에는 黃金史의 öbül을 單純히 ebül > öbül 로 보아버릴 수 없는 複雜한 問題가 있다. 이것은 黃金史에서 볼 수 있는 稀貴한 例이다. 먼저 여기 대한 Poppe의 見解을 보기로 한다.

Wie die Vergleichung des mongolischen mit den Türksprachen beweist, wurde das e im Mongolischen oft zur Bezeichnung eines ö gebraucht. Alte mongoloische Handschriften stehen auf einer viel älteren Stufe, indem in ihnen in gewissen Worten fast immer ö statt eines späteren e steht. Beispiele: AQ f.5v. öbül “Winter” (später geschr. ebül), vgl. im Briefe des Argun öbül; M ödür “Tag”, auch öder ds. (f. 131) (33)

Wenn der Vokal der ersten Silbe ein kurze e und der folgenden silbe ein ü gewesen, so ist in den lebenden mongolischen Mundarten das e zu einem labialisierten Vokal.....In alten mongolischen Handschriften findent man öbül “Winter” (Vgl. AG f. 5v. ; ödür < edür “der Tag” passim u.a.) (34)

(32) *Ibid.*, p. 73.

(33) N. Poppe, *Beiträge zur Kenntnis der altmongolischen Schriftsprache*, Asia Major I. 1924, p. 671.

(34) N. Poppe, *Gesseric, Untersuchung der Sprachlichen Eigentümlichkeiten der mongolischen Version des Gesserkhan*, Asia Major 3, 1926, p. 12.

Poppe 는 이와 같이 *e>ö라는 變化를 推定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文語形인 ebül, edür 등이 옛 文獻에서 오히려 öbül, ödür 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Vladimircov 는 다른 見解를 提示하고 있다. 또한 Weiers 도 1338年, 1382年頃의 14世紀 文獻에 나타나는 것을 指摘하면서 ödür 가 後期 文獻에서는 오히려 edür 로 나타나고 있어서 ö>e 와 같은 變化를 볼 수 있다고 Poppe 와는 正反對의 見解를 보여주고 있다.⁽³⁵⁾ Vlademircov 는 edür 가 古代蒙古語에 存在했던 e와 ö의 中間인 어떤 母音을 表示하며 그것은 圓唇的인 ö 일 蓋然性이 크다고 보았다. 즉「最小限의 發音活動으로 發音되는 ö로서 이것은 그것이 어떤 唇音—母音 또는 子音의—에 先行하는 訃말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訃말을 土耳其語의 öd(時)와 連結시키고 있다.⁽³⁶⁾ 이러한 稀貴한 形態가 黃金史에 나타나는 것은 注意할만한 事實이다.

415. 先古典文語의 特徵이며 또한 德王府本에서 본 바와 같이 語頭에서 母音을 介在시키지 않고 子音이 두개 繼續해서 나타나는 것은 內蒙古 혹은 Čaqar 方言에서의 한 特徵이라 하겠는데 이러한 例가 많지는 않으나 우리의 黃金史에서도 볼 수 있다.

čbči- (61, 87), Mo. čačbi- 꺾다

čda- (25), Mo. čida- 할 수 있다

(2) 形態的 特徵

421. 屬格. 規範的인 古典文語에서는 1) 單母音, 二重母音으로 끝나는 語幹에는 語尾 -yin, 2) -n 로 끝나도 語幹에는 語尾 -u, 3) 子音으로 끝나는 語幹에는 語尾 -un 을 添加해서 屬格形을 形成한다. 그러나 先古

(35) M. Weiers, *Untersuchungen zu einer historischen Grammatik des präklassischen Schriftmongolisch*, Wiesbaden 1969, p. 59.

(36) B.Y. Vladimircov, *Sravnitel'naya grammatika mongol'skogo pis'mennogo iazyka i chalchaskogo narečiya*. Leningrad 1929, p. 153.

典文語나 혹은 方言의 影響을 받은 文獻에서는 위와 같은 規則 없이 서로 混同해서 나타난다. 黃金史에서도 이러한 例가 많이 나타난다. 特히 -u가 -i로 나타나거나 혹은 -ai/-ei로 나타나는 것은 口語影響의 代表的인 例라 하겠다.

dayisun-i(60) 敵의	qaγan-i(60) 可汗의
Aoqan-i(72) 아오한의	aǰirγan-i(47) 種馬의
ordos-yin(44) 울도스의	kümün-ei(44) 아들의

特殊한 口語形으로 다음과 같은 形態가 나타난다.

- A) dayuu-yi-yin(65) дайуу의
 qan-i-yin(16) 汗의
 bayan sartaγar-i-yin(34) 巴安 살타갈의
 maγu-yi-yin(35) 懃의
 čama-i-yi(73) 朮의
- B) ǰaγaγa-gi(95) 불알을

위의 例中 A)의 -yi-yin 또는 -i-yin을 Poppe는 orthographische Eigentümlichkeit라고 본다.⁽³⁷⁾ B)의 -gi는 一例에 不過하지만 이것도 代表的인 口語的 要素라 하겠다.

422. 古典文語에서는 單母音과 二重母音 그리고 -n, -ng, -l, -m로 끝나는 語幹에는 -dur/-dür, 其他 子音으로 끝나는 語幹에는 -tur/-tür를 添加해서 與・處格을 形成한다. 그러나 非古典文語에서는 -du/-dü, -tu/-tü, -da/-de, -ta/-te 등이 使用되기도 한다. 黃金史에서는 -d와 -t가 混同되서 나타나는 것이 特徵이며 -da/-de, -ta/-te, 의 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것은 勿論 도처에 많이 나타나나 여기서는 그 몇 가지 例만을 보기로 한다.

ger-te(12, 28) 집에	dei sečin-dü(14) 데이 세친에게
šangdu-da(50) 上都에	daiydu-da(50) 大都에

(37) N. Poppe, *Gessericca*, p. 16.

이밖에도 -a/-e가 있는 바, 이것은 先古典文語에서 特徵적인 것으로서 黃金史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注目된다.

ʃil-e(49, 50, 51, 52,57) 해(年)에
 arban tobun-a(18), 15(日)에 ʃaʃar-a(18) 곳에
 terigün-e(20) 源(流)에 ʃabsar-a(39) 사이에
 kijʃar-a(42) 境界에 nasun-a(49) (42)歲에

그런데 이 特徵적인 -a/-e가 黃金史에서 全卷을 통해서 散在하고 있으나 大體로 몇 句節에 集中的으로 나타나는데 注目된다. 이것은 興味 있는 事實로서 黃金史의 한 性格을 反映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 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49].....tegiün-ü qoyina ʃutaʃar on bolʃu. üker ʃil-e ögedei qayan döčün ʃurban nasun-dur-ıyan kerülen-ü ködege arulan-du yeke oron saʃuba : arban ʃutaʃar on bolʃu üker ʃel-e tabin nasun-dur-ıyan ütekü qulan-a tengri bolba. ögedei qayan qonin ʃil-tü aʃuʃu külüg qayan ʃirʃuyan on balʃu morin ʃil-dür örmüge-tü-de döčün qoyar nasun-a yeke oron saʃuba: nöğüge on qonin ʃil-e döčün ʃurban nasun-dur-ıyan semsike-de tengri balba.

(그뒤 3年이 지나서 소(牛) 해에 외게데이可汗이 43歲로 케류렌의 쿠티에게 아르란에서 大位에 올랐다. 13年이 지나서 소(牛) 해에 55歲로 유테큐 후란에서 昇天했다. 외게데이可汗은 羊띠이다. 큐룩可汗은 6年이 지나서 말(馬) 해에 일뮤게투에서 42歲로 大位에 올랐다. 다음해 양(羊) 해에 43歲로 셈시케에서 昇天했다)

[52].....ʃučin ʃirʃuyan nasun-dur-ıyan luu ʃil-e naiman sara-yin ʃiruʃuyan sine-de ʃangdu-da tengri bolba : yisün temür qayan moʃai ʃil-tü aʃuʃu : tegiün-ü qoyina mön ʃayaya-tu qayan ʃučin tabun nasun-dur-ıyan luu ʃil-e naiman sara-yin arban qoyar-a yeke oron saʃuba. nöğüge on moʃai ʃil-dür qutuʃ-tu qayan barayun eteged-eče aldar tegüsʃü ireʃü. qubi sara-yin arban yisün-e ʃučin nasun-dur-ıyan yeke oron saʃuba : qasbuu tamaya aldamui čingsang-yi alayulʃu esergülčin inu uʃtuʃulun ilegeʃü üciʃü abuyad, odʃu qutuʃ-tu qayan čičig-tu naʃur-a, dörben sara-yin ʃurban sine-de yeke oron saʃuba : mön on naiman sara-yin ʃirʃuyan sine-de tengri bolba: tegiün-ü qoyina mön sara-yin arban-a ʃayaya-tu qayan yeke oron saʃuba : tabun

on bolju sira mečin jil-e γučin tabun nasun-dur-iyān dayidu-da tengri bolba :
 mön mečin jil-e irčamal qayan mön sara-yin tabun sine-de yeke oron ayuba :
 mön sara-yin qorin tabun-a mečin jil-dü dayidu (6년이 되어서 36歲로 용해에
 8月 6日에 上都에서 昇天했다. 이순 테물可汗은 밍띠이다. 그 뒤 같은 해에
 자야가투可汗이 35歲로 용해에 8月 12日에 大位에 올랐다. 다음해 밍해에 후
 득可汗이 東쪽에서 名聲을 올려 돌아와서 正月 19日 30歲로 大位에 올랐다.
 寶璽를 잃었다. 丞相을 죽이게 하여 그의 敵對人을 마중하도록 보내고 가서
 후득可汗이 치칙투湖에서 6月 3日에 大位에 올랐다. 同年 8月 6日에 昇天했
 다. 그 뒤 같은 달 10日에 자야가투可汗이 大位에 올랐다. 5년이 지나서 겐
 은 원숭이해에 35歲로 大都에서 昇天했다. 같은 원숭이해에 일차말可汗이
 같은 달 5日에 大位에 올랐다. 같은 달 25日 원숭이해에 大都.)

이러한 事實은 黃金史의 成立에 重要的 暗示를 한다. 즉 部分的인 異質
 性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先古典文語의 要素가 集中的으로 몰려 있
 다는 것은 이와 같은 特徵을 가진 어떤 文獻에서 部分的으로 黃金史에
 引用됐으리라는 推定이 可能하다. 다시 말하면 黃金史의 成立에 있어서
 어느 한 個人에 의한 創作的인 것이 아니라, 다른 文獻에서나 혹은 위
 에서 말한 바와 같이 口傳된 傳說이나 說話등을 그대로 「編述」한 것이
 기 때문이다.

위에 든 例가 바로 이러한 事實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423. 規範的인 古典文語에서는 語幹에 -ača/-eče 를 添加하여 奪格을
 形成한다. 그런데 이 語尾는 -ača/-eče 와 같이 複合된 形態임은 더 말
 할 必要도 없을 것이다. 이 경우 -a-는 原來 與-處格 語尾로서 先古典
 文語에서 많이 使用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先古典文語
 에서는 또한 -a- 대신에 與-處格 語尾인 da/-de, -ta/-te 가 -ča 와 複合하
 는 特殊한 경우가 있으며 이 形態가 黃金史에 나타난다.

ger-te-če(59), 집에서 tengri-de-eče (21, 47) 하늘에서
 eke-de-če(94) 어머니에게서

또한 -ača/-eče 가 口語에서는 -sa/-se 를 變化하는데 그러한 例도 있다.

eke-se(12) 어머니에게서

424. 規範적인 古典文語에서는 母音으로 끝나는 語幹에는 -bar/-ber, 子音으로 끝나는 語幹에는 -iyar/iyer 을 添加해서 具格을 形成한다.

manggir-iyar(14) 마을로 belge-ber(55) 徵兆로

čilaγun-iyar(16) 들로 ginji-ber(16) 쇠고리로

그런데 一例에 지나지 않으나 čimeger(17, 소리로)와 같은 特殊한 形態가 나타난다. 이것은 čimege (소리)의 具格形이다. 이 形態는 cimegēr 와 같이 -Vr가 添加된 것으로서 -Vr는 方言의 影響을 받은 特徵적인 것이라 하겠다. (38)

425. 古典文語에서는 -luγa/-lüge 가 代表的인 共同格 語尾이다. 黃金史에서도 主로 이 形態가 많이 使用되나 -la/-le도 보인다. 이것은 勿論 -luγa/-lüge에서 變化한 口語形이라 하겠다.

oyirad-la (72), 오이랄과 더불어 jinong-la(72) 親王과 더불어

이밖에 -tai/-tei가 具格으로 使用되기도 한다. 이것은 古典文語에서는 名詞에 添加되어 形容詞를 形成하는 것이다(mori-tai, 말<馬>을 가진). 그러나 口語의 影響을 받은 文獻에서는 -tai/tei가 具格語尾로 使用되며 黃金史에서도 많은 例는 아니나, 찾아 볼 수 있다.

čireg-tei niγuba(92), 兵士와 더불어 숨었다.

qoyar kökegün-tei qorlad-un aγbolad qoyar nöker-tei tabuyula-yi bariju(두 아들과 <더불어>, 肅蘭의 알보랄 두 친구와 <더불어>, 다섯을 잡았다).

431. 人稱代名詞는 大體로 古典文語에서 볼 수 있는 形態로 나타나나 다음과 같은 特殊한 形態가 있어서 注目된다.

na-da (1st. Per. Pro. Loc.-Lat. Sing.), 19, 28, 82, Mo. nadur

(38) *Ibid.*, p. 23

이 形態는 元朝祕史에서 나타나고 또 方言에서는 Dagur 方言과 Ordos 方言에서 보인다.

一人稱 單數 對格形으로 nama-i-yi(41, 80) 또는 nama-i(63)와 같은 어느 方言에도 보이지 않는 特殊한 形態가 있다(Mo. namayi). 다만 nama-i는 Mukaddimat al-Adab 辭典에서만 보이는 稀少한 特殊形이라 하겠다.⁽³⁹⁾ 二人稱에서도 Čima-i(Mo. čimayi)가 나타난다. 더욱 興味를 끄는 것은 nama-i-yi와 같은 形態로서 形態上 口語의 影響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筆者가 알고 있는 限 이런 形態는 어느 方言에서도 볼 수 없다. 이와 꼭 같은 形態가 二人稱 單數形에서도 나타난다 : čama-i-yi(73, 84), cf Mo. čimayi. 여기서 注意할 것은 첫 音節의 母音 i가 a로 變化한 것인데 이것은 屬格을 除外한 斜格에서 Dagur, Ordos, Khalkha, Buryat, kalmuk 등의 方言에서 나타나는 現象이다.⁽⁴⁰⁾ 이밖에 一人稱 單數 屬格形인 min-u에 대한 口語形 min-i(12, 41) 또 二人稱單數 屬格形인 čin-u에 대한 口語形 čin-i(19)가 나타난다. 三人稱 單數 屬格形도 文語形 inu에 대한 ini또는 ni가 나타난다. ini, ni는 引用할 必要도 없을 만큼 많이 使用되고 있다. (naṛaču-nar tuni <=naṛaču-nar-tu-ni> 12, 그의 外家 친척들에게 ; qat-un-aca ni 34, 그의 皇后보다; qota-yin ni 27, 그의 城의).

441. Imperative : 命令形中 benedictive는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以上에 대한 敬중한 뜻을 表示한다. 古典文語에서는 語尾 -ṛtun/-gtün으로서 形成된다. 黃金史에서도 다음과 같은 用例가 보인다.

qaraṛtun(22) 統治하십시요

yabuṛtun(22) 가십시요

sanasuṛtun(22) 들으십시요

ečigtün(17) 가십시요

그러나 先古典文語에서는 -dqun/dkün과 같은 特殊한 形態가 使用된다. 黃金史에서는 한 例가 보인다.

(39) N. Poppe, *Introduction to Mongolian Comparative Studies*, Helsinki 1955, p. 212.

(40) *Ibid.*, p. 213.

nengjǐdkün(42) 調查하십시오

442. Optative : 이 願望形은 모든 人稱에 使用되며 보통 達成되기 不可能한 것을 바라는 뜻을 表示한다. 이 形은 規範的인 古典文語에는 없는 것으로서 語尾 -γasai/-gesei 로 形成된다.

önjigesei(71) 머무르시오(머무르셨으면 합니다)

tarqaysai(33) 布告하십시오 medegesei(35) 아십시오

γarγarasai(41) 내보내십시오

여기 orkiyasai(69, 버리시오)와 같은 -yasai가 한 예 注目된다. 이것은 勿論 -γasai>-yasai로서 特殊한 變化段階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類似한 예는 Poppe도 Gesserica에서(p. 168) 提示한 바 있다 : qariyasai <qariγasai(würdest du doch Zurückkehren). 이밖에 古典文語에 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特殊한 形態가 使用되고 있다.

-besei: ükübesei(71) 죽자

-sai: medesei(25) 생각하자 seregülesei(33) 깨우자

absai(35) 잡자

443. Voluntative : 規範的 古典文語에서는 -suyai/-sügei로서 形成하나 先古典文語에서는 -su/-sü가 使用되며 또 現代文獻에서는 原來 三人稱에 대한 것이었던 -tuyai/-tügei가 一人稱・二人稱에 關係 없이 使用되기도 한다. 黃金史에서는 다음과 같은 用例가 보인다.

üčesü(75, 80) 보자 ečisü(75) 가자

nekesü(94) 遊牧하자 orosu(19) 들어가자

이밖에 -y-a/-y-e가 또한 使用됨은 勿論이다.

451. 現在形 : 古典文語에서는 -mui/-müi가 가장 規範的인 現在形 語尾이다. 그러나 口語의 影響을 받은 文獻에서는 -nam/-nem 또는 -m가 나타난다. 黃金史에서도 -mui/-müi가 代表的으로 使用되고 있으나 其他 口語形도 상당히 나타난다.

yabunam(12) 간다	bayinam(13, 18, 60, 70) 있(이)다
sayulγanam(70) 낮추다	genem(31, 35) 말한다
bolγam(12) 탄든다	abum(14) 잡다
ügülem(15) 말한다	küriyelem(55) 包圍하다
uyilam(69) 운다	quriqam(69) 모운다
qučam(69) 짓다(吠)	sanaydam(70) 생각하다
sayulγanam(70) 앉히다	kim(70) 붓다
ečem(17) 간다	medem(3) 알다
dayaraγulum(32) 춤다	tasuram(32) 짜른다

이밖에 所謂 deductive present 라고 부르는 qoryodayuluyu (17, 避難시킨다)에서와 같은 -yu/-yü 도 나타난다. 그러나 二例에 지나지 않으나 가장 興味 있는 形으로 odui (18, 간다)와 bui (55, 이다)가 나타난다. 이것은 語尾 -i 로 形成된 것으로 稀貴한 例이다. 이 -i 는 起源的으로 動詞에서 名語를 形成하는 接尾辭이었던 것으로 여기 관해서 Poppe 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⁴¹⁾

Schliesslich finden wir im Gesserkhan auch die alte Form *ayisui* "er nähert sich"..... *odui* "er geht fort", beide auf -i. Diese Suffix -i finden wir in *bui* und es war ursprünglich ein Suffix des Nom. verbale(eines Partizipiums), da *bui* auch jetzt noch dekliniert werden kam..... Viele Kasusformen sind von *ayisui* und *odui* bekamt.

452. 過去形 : 古典文語에서는 -ba/-be, -bai/-bei 가 代表的이다. 이밖에 -luya/-lüge 가 使用되는데 黃金史에서도 위에 든 形態가 나타난다. 그러나 (-luya/-lüge) -la/-le 와 같은 口語形이 나타는데 注目된다.

irele(13, 18) 왔다	getele(55) 接近했다
alala(71) 죽었다	dayala(19) 떠났다
sanala(20) 생각했다	gele(36) 말했다
bile(12, 19, 23, 83, 88)	

最後의 例는 文語形 bölüge(…있었다)가 變化한 口語形으로 자주 나

(41) *Ibid.*, p. 170. 先古典文語에 관해서는 Weiers(*op. cit.*, p. 139ff 參照).

타난다.

461. *nomen perfecti*: 古典文語의 語尾 *-γsan/-gsen* 이 口語形으로는 *-sen/sen* 으로 나타난다. 黃金史에서는 一例만 볼 수 있다.

qayasan(73) <Mo. *qayaysan* 防止한

462. *nomen futuri*: 古典文法에서는 *-qu/-kü, -qui/-küi* 가 代表的인 語尾이다. 古典文語에서는 *-qui/-küi* 는 名詞로서만 사용되는데 대해서 先古典文語나 現代語에서는 그 區別이 없이 사용된다. 黃金史에서는 區別 없이 나타난다.

öbölčiküi balyšan(57) 저울을 보내는 城

kereldüküi-yi(60) 싸움을

ečikür-dür(12) 갈 때

samlaqui-ban bayıju(69) 빗지 말고

kebteküi-yi(16) 누어 있음을

nengjikü-dü(17) 찾을 때

gekü-dü(32) 말할 때

471. *Converbum conditionale*: 黃金史에서도 古典文語에서의와 같이 *-basu/-besü*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bolγasu*(41)에서의와 같이 *-γasu* 같은 特殊한 形態가 나타나는데 注目된다. Poppe 는 이것을 口語的 要素로 보고 있다: *ausserdem finden sich im Schriftmong. die aus der Umgangssprache entlehnten Suffixe -asu (-esü) <-γasu.*⁽⁴²⁾ Poppe 는 이 形態를 Rudnev 의 文法에서 引用하고 있다. 이밖에 *-asa, -asai* 와 같은 特殊한 口法的 要素가 있는데 黃金史에서는 *bol-*에 限해서 나타난다: *bolosa* (28, 36, 39, 42, 69, 70, 74, 83, 85, 91).

472. *Converbum imperfecti*: 古典文語의 *-ju/-jü* 가 口語에서는 *-ji* 로 變化해서 나타난다. 黃金史에서도 많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例가 보인다.

talaji (12) (捕擄로)잡으며 *geji* (14) 말하며

(42) *Ibid.*, p. 175.

473. *Converbum successivum* : 語尾 -qula/-küle 로 形成된다. 이것은 古典文語에서는 전혀 使用되지 않은 口語의 用法이다. 黃金史에서는 상당히 廣範圍하게 나타난다. 다음에 그 몇 가지 例를 보기로 한다.

bayilduqula(15) 싸우자마자	ireküle(30) 오자마자
qučiqula(35) 깃자마자	üküküle(73) 죽자마자

474. *Converbum prolocutivum*⁽⁴³⁾ : 이것도 古典文語나 先古典文語에서는 전혀 使用되지 않는 純粹히 口語的 用法이다. 口語의 影響을 받은 文獻에서는 語尾 -qar/-ker 로 나타난다. kalmück 方言에서는 「...을 하기 위하여」의 뜻을 表示하나 다른 方言에서는 「...대신, 혹은 ...하느니보다」의 뜻으로 使用된다. 黃金史에서는 한 例만이 나타날 따름이다.

nere-ben quɣuqar yasu-ban quɣura (이름을 꺾느니보다 뼈를 꺾어라),
p. 56.

이 例를 보면 黃金史의 蒙古語에 影響을 미친 方言이 大體로 西部方言이 아님을 暗示하고 있다.

475. *Converbum praeparativum* : -r-un 으로 形成되는 이 形態는 先古典文語에서는 어느 動詞에도 共通的으로 널리 使用되었으나 古典文語에서는 그 使用이 制限되어 겨우 ügüle-(말하다), keme-(말하다), (jarliɣ) bol-(말씀하시다), bü-(있다), üje-(보다) 등의 動詞에서만 使用된다. 그러나 黃金史에서는 先古典文語에서와 같이 廣範圍하게 使用되고 있다.

asuyur-un(12) 묻기를	öcir-ün(14, 23, 28, 35, 41) 곱하기를
tayilur-un(55) (꿈을)풀기를	sedkir-ün(60) 생각하기를
keler-ün(63) 말하기를	ayiladqar-ün(77) 上奏하기를

476. Nomen 뒤에 助動詞(bol-, a-, bayi-)가 連絡되어 文章을 終結하는 助動詞로 使用되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 idejü bolumui(먹을 수 있다), idejü bayinam(먹고 있다). 그러나 다음에 보는 例와 같이 現在形에 bile

(43) *Ibid.*, p. 181, A Mostaert, *Textes Ordos*, p. LXI.

(bölüge, § 452參照)가 連結되는 것은 筆者가 알고 있는 限 어느 方言이 나 또는 先古典, 古典文語에서도 使用例를 볼 수 없는 것이다. 文脈上으로 보아 過去를 表示한다.

bolıyam bile(12) 되었다

ǰusam bile(58) 夏營했다

qadayalam bile(33) 守護했다

surum bile(33) 배웠다

(4) 統辭的 特徵

477. 先古典文語 혹은 옛 手寫本에는 語順에 特徵이 있다. 古典文語에서는 主語가 文頭에 오고 述語動詞가 文末에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先古典文語에서는 主語가 文末에 오는 例가 많은 것이 한 特徵이다. 다음에 몇 가지 例를 보기로 한다. ⁽⁴⁴⁾

Suruysan erden-i. “er hat die Tugend erlernt”.

rarču esekü üjbeiči bideni čerigüd. “herausgehend hast du unsere Heere doch nicht gesehen.”

ǰobalangrud-eče tonııyasuıai kemen ǰuǰulaya či jeke bayatur teyimü qutugi erte urida. “mög ich mich von den Qualen befreien! solch eine Heiligkeit hast du grosser Held, früh begehrt.”

arııun šaršabad iyen ese bulııdalııya či tegün-dür. “du hast nicht zugelassen dass sie sich an deinen reinen Gelübden vergreifen.”

olumui edüge ükül ügei qutuıı-i, “er findet jetzt eine unsterbliche Heiligkeit.

黃金史에서는 動詞 뒤에 目的語가 오는 例는 없으나 主語가 文末에 오는 例는 많다. 이 경우 大部分의 主語가 人稱代名詞임에 注意할 必要가 있다.

ai temüǰin üneseın-i min-u ǰaryan aldabai či gebe (오! 테뮈진! 나의 재(灰)를 보낼번 했다, 너는.) p. 17.

naiman sirıya-yi min-u tayıčuıırud abču iregsen mör-tür oroǰu irebe (내 여덟 [펠]의 淡黃色 말을 타이추군이 가져간 길을 따라서 왔다, 나는.) p. 18.

(44) N. Poppe, *Beiträge*, p. 675.

aran üjbebi bi(겨우 보았다, 나는.) p. 20.

qurči-yin ene üge uqabuu ta(출치의 이 말을 알았느냐? 너는.) p. 28.

qudurγayči qara bodung gegči bile bi. qara terigü-tü kümü-dü γartaba bi(이 빨로 쪼는 검은 멧돼지라고 합니다, 나는. 검은 머리의 사람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나는.)

ukilaju qočorbai bi. nutuγ-tu qočoraysan ulayan birayun-dur adali bolbai bi(울면서 남았다, 나는. 牧地에 남은 빨간 두살짜리 송아지와 같았다, 나는.) p. 57.

bigüiči nere-yi min-u tayiqu bolγabai či(비기치라는 이름을 太后<라는 이름으로> 만드셨다, 당신은.) p. 64.

nama-yi asaraju qautn bolγaba či. köbegün-i toqon-i min-u kümün-dür qakin jaruγuba či(저를 어엿비 여겨서 妃로 삼으셨다, 당신은. 저의 아들 토혼을 사람에게 어찌 종살이 시키시겠습니까? 당신은.) p. 69.

nigen sumu ese qarγulju ükübesei bi(한 화살을 주저말고 쏘아서 죽게 해주십시오, 내가.) p. 71.

jinog eiklen bügüde-yi ese üčibe bi(지능<을> 비롯하여 모두들 보지 못했다, 나는.) p. 79.

ečige eke-yügen medebe či(아버지 어머니를 알지 못했다, 나는.) p. 84.

qayan-ıyan orkiju yakin ködölün bida(可汗를 버리고 어떻게 움직이느냐, 우리들은.) p. 87.

478. 先古典文語에 特徵的인 分詞 kü 와 ni 가 使用되는데 注目된다.

Poppe 는 kü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例를 들었다. ⁽⁴⁵⁾

(1) esekü üjbebi či. “ncht hast du gesechen.” esekü qaribai. “nicht ist er zurückgekehrt.”

(2) kürdünikü(=kürdüni-i kü), “das Ras Rad.” či kü, “du gerade.”

위에 든 例中 (1)의 (ese-)kü와 (2)의 kü 를 同一視한 것은 큰 잘못으로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否定詞인 ese 는 起源的으로 하나의 動詞이었으며 이것이 動詞로 使用되었던 時의 形態가 化石化되어 남아 있는 것이 곧 esekü 이다. 이 경우의 -kü 는 勿論 nomen futuri 의 語尾이다. 또한

(45) *Ibid.*, p. 675.

nomen perfecti 語尾 -γsan 이 添加된 形態가 化石化되어 特殊한 뜻을 表示하기도 한다.

yabuqu esekü(가는지 안가는지)

iregsen esegsen-i ülü medemtü(갔는지 안갔는지를 알수 없다)⁽⁴⁶⁾

따라서 (2)의 例만이 여기 該當되는 것이다. 이 kü는 意味를 強調하며 強調하는 낱말 뒤에 오는 것이 보통이다. 黃金史에서는 다음과 같은 用例가 있다.

tere kü jegüdüñ min-u(12) (나의 바로 그 꿈)

tan-u kü südde ajuγu(12) (바로 너의 前兆이다)

ulus-ıyan kü(57) (바로 그 나라를)

ni는 該當 動詞가 表示하는 動作의 可能性 혹은 不確實性을 表示하는 特殊한 分詞로서 古典文語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黃金史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 例가 보인다.

qas erdeni metü kegür-i čin-u abču qariya ni qatun börtkelčün-dür čin-u üçü-gülüye ni. qamuy ulus-tur čin-u kürgeye ni(寶玉 같은 당신의 遺骸를 모시고 갑시다. 당신의 빌테켈진에게 보입시다. 당신의 모든 人民에게 돌아갑시다).
p. 48

다음에는 Ordos 方言에서 보이는 特殊한 分詞 či가 使用되는데 注目된다. 여기 관해서 Mostaert의 說明을 보면 다음과 같다.

-ts'i : partic. concessiv; partic. corroborative; s'emploie parfois par euphonie dans les chansons ; l'équivalent français est parfois : "aussi", "quant à.....".

古典文語에 있어서의 形態(čü)와 機能에 관해서는 Poppe의 文法 參照⁽⁴⁷⁾. 黃金史에서는 다음과 같은 用例가 있는데 이것은 euphonie에 該當한 用法이라 하겠다.

(46) N. Poppe, *Geserica*, p. 193.

(47) *Ibid.*, p. 185.

sayin-či tusa-tu bui-ja. maɣu-ci qoura bui-ja(좋다면 利益이 될 것이요, 나쁘다면
 손해가 될 것입니다) p. 53.

nama-yi yeke-či jaŋčiba. baɣa-či jaŋčiba(나를 큰 것이 때렸다. 작은 것이 때
 렸다)p. 84.

479. 動詞 eči-은 東部와 南部方言에 特徴적인 것으로서 이것은 黃金史의 方言的 影響을 推定하는데 있어서 重要な 意義가 있다.⁽⁴⁸⁾ 이 動詞는 黃金史 全般에 걸쳐 많이 散在하고 있다.

eči-(12, 14, 17, 18, 27, 36, 46, 75, 78, 80, 81, 83, 85, 110, 123)

5. 結 語

511. 위에서 考察한 言語的 特徵으로 미루어 볼 때, 黃金史의 成立過程을 考慮하지 않고 蒙文書社 初版本의 蒙古語만을 본다면 先古典文語에서 古典文語로 넘어가는 過渡期的 段階를 보여주고 있다. 正書法上 ħ ĵ가 잘 區別되지 않는 곳이 있고 또 曲用・活用語尾의 t/d가 混同된다든가 또는 n와 ɣ의 點이 없다든가 하는 것은 先古典語文獻에서와 같은 混同이라 하겠다. 그러나 母音間의 ɣ/g를 거의 例外 없이 表記하고 있는 것들은 黃金史가 大體로 規範적인 古典文語로 統一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앞에서 考察한 바와 같은 先古典語的 要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黃金史의 蒙古語가 完全히 古典文語化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黃金史의 編述年代를 17世紀初로 보려는 筆者의 見解가 타당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黃金史의 編述年代는 지금까지 內容面에서만 考察되었다. 그러나 言語的인 面에서도 考慮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512. 先古典文語의 特徵적인 要素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48) N. Poppe, *Grammar of Written Mongolian*, Wiesbaden 1954, p. 175.

屬格. -yin, -un 의 混同.

與-處格. -a 의 用例.

奪格. -da-ča/-de-ča 의 用例.

共同格. -tai/tei 의 用例.

Voluntative. -su/-sū 의 用例.

Nomen futuri. -qu/-kü, -qüi/küi 의 文法上 混同.

Converbium praeparativum. ⁵-r-un/-r-ün 의 廣範圍한 使用.

語順. 主語가 文末에 온다.

分詞. kü, ni 의 用例.

이러한 文法的인 特徵 以外에 낱말에 관한 것은 第二部에서 個別的으로 提示 될 것이다. 第二部에서 보는 바와 같은 難解하거나 또는 意味不明의 語句에 대해서는 두 가지 原因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先古典 文語의 特殊語彙를 그대로 維持하고 있으며, 둘째는 口傳에 의한 옛 傳說 說話등에서 傳承되는 옛 要素에 起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 黃金史의 蒙古語와 成立背景이 密接한 關係에 있음을 알 수 있다.

521. 黃金史 蒙古語의 口語影響에 대해서는 曲用・活用語尾 또는 Converbun successivum, Converbium prolocutivum 등에서 뚜렷히 나타나고 있어서 再論의 餘地가 없다. 그러나 口語的 要素나, 特히 動詞 eči-의 使用 등으로 보아 東・南部 蒙古語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實際로 kalmück 方言과 같은 西部方言의 要素는 찾아 볼 수도 없다. 이것은 勿論 黃金史의 編述背景을 생각해 볼 때, 足히 알 수 있다. 그러나 音韻面에서 볼 때, 東部蒙古語에서도 그 範圍가 더 좁혀진다. 그것은 Ordos 方言의 特徵인 üji-(Mo. üje-) ejin(Mo. ejen)과 같은 變化가 廣範圍 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 事實은 漠然한 口語의 影響에서 그 方言區域을 좁혀나 가는데 重要한 意義가 있는 現象이다. 그러므로 黃金史의 蒙古語는 크게 東・南部蒙古語에 속하여 그중에서도 Ordos 方言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하겠다.

第二部 特殊語彙篇

(1) orčilang-un kümün amitan-u **onoču üiledkü** tulada. ori burqan-u ĵayaya-bar-
maqa samadi. olan-a ergügdegsen qaγan kemen aldarsibai (現世의 衆生에는 [事
由를] 알고 行함이 없기 때문에 至尊 佛陀의 命으로 嘛哈薩嘛諦를 衆敬王이
타고 讚揚했다). p. 1.

이 句節은 黃金史에서 가장 難解한 곳의 하나로 一定한 翻譯이 없고
從來의 研究를 보면 各自의 解譯이 모두 다르다. 먼저 [KM 3]는 「世界
の人類に欠くところがないやうに」로 翻譯하며 또 [KA 1]에서는 onoču
üiledkü ügei-yin tulada 를 「缺減이 없도록」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明白
한 誤譯이다. 이 譯者가 왜 이런 譯語를 擇했는지 알 수 없으며 또한
文法的으로도 無理한 解釋이다. 다음에 山本 守는 「世界の人類が適切に
行ふ事なき爲に」로 ono-를 「適切히」로 보며 üiledkü 는 이 낱말의 原 뜻대
로 보고 있으며 또 文法的으로도 [KM]보다 正確하나 ono-에 대한 譯
語가 釋然하지 않다. Gomboev 또한 「正義感이 없는 이 世上의 存在物
에 대해서」로 翻譯하고 있지만 onoču üiledkü 에 대한 譯語인 「正義感의
없는」도 적당하지 않다고 보다는 誤譯이다. [B 109]의 該當譯文은 「Be-
cause in the men and living creature of this world there was lack of succes-
sful action」으로 onoču 를 successful 로 보고 있으나, 이것 역시 理解하기
어려운 譯語로서 여기 대한 아무런 補充說明이 없다. [OA 28]는 kümün
을 主語, amitan-dur 을 與格으로 보며, onoču 에 관해서는 이것이 Ordos
方言의 ono'ts'i 와 同一한 낱말로 보고 있다. [MO 513] 에 의하면 ono'ts'i
에 「intelligence, sinification (d'un mot) ; profit, gain」과 같은 뜻이 있고
또한 東京外大의 蒙古人 講師가 onoču üiledkü 는 buyan üiledkü 와 같은
뜻이 아닐까 보는 根據에서 「宇宙の人間, 動物界に善事施ざりし故」로

翻譯할 수 있는 가능성을提示하고 決定的인 譯文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나 이것도 筆者에게 釋然하지 않다. 從來의 이 모든 研究에서 가장 難點이 되어 있는 것이 ono-라는 낱말의 뜻이다. onoču를 [KA]만은 名詞로 보고 있으나, 이것은 動詞로 보는 좋을 것이다. (黃金史에서는 ö와 j가 區別되지 않는 例가 많다). 筆者는 이 語句에 대한 解釋의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한다. [KD 344]에 의하면 ono-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1. atteindre (le but), 2. comprendre, concevoir, pénétrer」. 그러므로 筆者는 ono-를 「(事理를) 알고」로 보고 위와같이 解釋한다. 그리고 kümün amitan을 分離하지 않고 이것을 「衆生」으로 본다. 그리하여 「現世의 衆生에는 (事理를) 알고 行함이 없기 때문에」의 譯文을 擇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句節은 Maha samadi와 關係가 있기 때문에 Maha samadi가 누구인가를 考察해볼 必要가 있다. Maha samadi는 (Skt.) Mahāsammata와 同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maha는 梵語로 「大」를 意味하기 때문에 「大三末多」 혹은 「大三摩多」의 漢字로 表示되는 것이다. Mahāsammata는 「The first of the five kings of the vivarta Kalpa (成劫五王), one of the ancestor of the sākyā clan」으로⁽¹⁾ kalpa(劫)와 關係가 있기 때문에 이 句節은 佛教思想的 表現이 아닌 가 보게 되는 것이다. 然이나 ono-의 nomen futuri로 생각되는 onoqui에 佛教的인 kalpa(劫)의 뜻이 있다. 蒙· 梵語 佛教用語辭典에 의하면⁽²⁾ 「onoqui: 1. kalpa, 2. pariksā」의 對譯語가 보인다. 따라서 onoču üiledkü를 이러한 뜻으로 解釋한다면 「劫을 이룬다」의 뜻으로 「成劫」에 該當하는 蒙古語의 佛教的 對譯語인 onoču üiledkü와 關係가 있어보이는 것이다. 즉 vivarta Kalpa(成劫)은 「one of the four Kalpas, consisting of twenty small Kalpas during which worlds and the beings on them are formed」이

(1) Soothill & Hodoue, *A Dictionary of Buddhist Terms*, London 1937. p. 83. 554.

(2) R. Vira *Mongol-Sanskrit Dictionary*, New Delhi 1958. p. 344.

기 때문에⁽³⁾ 大三末多인 Maha samadi 와 直接的인 關係가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現世의 人間과 生物에는 [當初] 成劫이 없었기 때문에」 즉 「[아직] 人間과 生物이 形成되지 않았기 때문에」의 뜻이 되는 것이다. 黃金史에서 成吉思汗의 系統을 印度・西藏에서부터 찾는데, Maha samadi가 系譜의 最初에 오르고 있는 점에서 이런 可能性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句節에 該當하는 蒙古世系譜의 該當句節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天竺國嘛哈薩嘛諦汗相傳上古之時萬物無專主嘛哈薩嘛諦汗降世導民化衆……」

- (2) maqa samadi qayan-u altan uruγ-ača inay̆si saluγsan **gerge** qayan buyu tegün-ü köbegun sayin töröl-tü qayan buyu([이들이] 嘛哈薩嘛王의 黃金氏族에서 여기 由來한 王族[의] 王이다. 그 아들은 善生王이다). p. 2

從來의 翻譯을 보면 全部 gerge 를 可汗名인 固有名詞로 보았다. 一例로 [OA 173] 「マハサマデイ王の黄金族から此方へ分れしはケルゲなり. 彼の子, サイヌ トルルトウ王」. 그러나 위에 引用한 原文 앞에 있는 句節을 보면 gerge 를 固有名詞로 볼 수 없는 것이 確實하다. 그 앞 句節은 tegün-ü köbegün sayin üjegçi qayan buyu (그의 아들은 善見王이다) 로서 gerge 를 可汗名으로 본다면 이 善見王이 다음 gerge 可汗과 同一人物이 되어 앞뒤가 矛盾된다. 그러므로 gerge 를 固有名詞 아닌 다른 角度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筆者는 이것을 gergei 의 複數形인 gergen 으로 보고자 한다. 다만 gergen 의 原 뜻이 後世에 흐려지자, 一般的으로 語末音이 -n 로 끝나는 名詞는 많은 경우 그 -n 가 脫落해서 나타나는 것을 類推해서 여기서도 -n 가 없는 gerge 로 나타나는 것이다. gergei 는 ger(家) + denomnal suffix -gei 로 形成된 것이다. Ordos 方言에는 여기 該當하는 Geri^{ek}γi (=qui est de la maison)가 있다 [MD 260]. 그러나 이 뜻으로도 위의 文章을 解釋할 수 없다. 參考로 [KD 2518]에는 épouse, épouse

(3) Soothil & Hodous, *op. cit.*, p. 232.

légitime 의 뜻이 있으나 이것도 本文章에서는 適當한 譯語가 못 된다. 이렇듯 gergen 은 古典文語에서나 方言을 考慮해서도 풀리지 않은 特殊한 語彙이다. 그러나 이 稀貴한 뜻의 gergen 은 元朝秘史에 나타나는 것과 同一한 것으로 생각된다 : [HW 49] gergen (uthar) 人口 Einzelpersonen, Familienmitglieder. 그러므로 gergen 은 한 家族의 모든 構成員을 指稱하는 것으로서 筆者는 여기 다음 qayan 을 考慮하여 「家族」 즉 이 경우 「王族」의 뜻을 擇하게 된 것이다.⁽⁴⁾ 이것은 또한 qayan 과 gergen 을 同格으로 보고 gergen 을 元朝秘史에서와 꼭 같은 뜻으로 解釋한다면 「黃金族에서 여기 由來한 (黃金族員인) 汗이다」로 보아 옳을 것이다.

(3) odaqan inu töröl-ki köke *kiris* üsütü yar köl inu qabayai (막내아들은 날 때부터 푸르고 하늘빛의 털이 있었다). p. 3.

[KM 5]는 「青い眉毛をし」로 *kiris* 를 翻譯하지 않고 있으며, [OA 34]는 「魔物の」와 같이 意譯하고 있다. 여기 대한 [世]의 該當 句節을 보면 「庫薩汗之孫沙爾巴汗之第二子也而綠髮……」와 같이 köke *kiris* 의 部分이 單純히 「綠」으로 되어 있다. [KD 2548]에 의하면 「turquoise」(土耳其石)의 뜻이 있다. 또한 [MJ 1638] 參照 : 「犀, 土耳其石」. 여기서는 土耳其玉色을 表示하는 形容詞로 보아야 할 것이다. 土耳其玉의 色이란 「青綠」이다. 本稿에서는 앞의 köke(푸른)와 對比해서 「하늘 빛」으로 意譯했다.

(4) času-tu šambu ayula dörben **ker** yaǰar-i üjeǰü(눈 [빛인] 삼부山과 四方 草原地를 보고). p. 3.

이 句節에서 問題되는 곳은 **ker** 이다. [KM 5]는 單純히 「雪山の四方

(4) Cleaves 는 이 gergen 이 Hsia Ching(unpublished)에서 使用되는 例를 들고 gergen tuqqar 는 all members of the household 을 指稱한다고 說明한다. 또 gergen 에 관해서는, *gergei* must have meant originally "one who is connected with the house," "a domestic," "a servant" and from the "she who stays at home," "the wife." F.W. Cleaves, *Review of "Die Geheime Geschichte der Mongolem"* by E. Haenisch,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12—3.4, 1449, pp. 522—524.

の地をみて]와 같이 ker 을 翻譯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U]에 의하면 ker 대신 qari 가 보인다. 이것을 擇한 것이 [B 112]이다 : The snowy Sambu mountains and the four strange lands. 要는 ker 와 qari 가 어떤 關係에 있는가가 問題이다. 筆者는 [P₁]의 ker 가 意味不明이기 때문에 [U]에서 이것을 qari 로 修正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ker 는 kegere 의 口語形인 kër 임이 틀림 없다. [MD 416] k'ère (stepps; dans la campagne). 그리고 [KM], [OA]은 ayula 뒤에 屬格語尾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筆者는 ayula 와 dörben ker raĵar 사이에 接續詞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文法上 無理가 없다.

- (5) duwa soqor dobun mergen degü-ben abču burqan qaldun-a degere ɣarču sa-ɣutala. **duyirang giritü-eče** tenggilig qoroqun uruɣu irekü negüdel-i duwa soqor üjǰü degüü-degen dobu mergen-dü kelebe. tenggilig qoroqun uruɣu irekü negüdel-ün tergen-ü ölcigen dotora nigen ökin saɣunam (두와 소홀은 도부 멜겐 [이라는] 自己의 아우를 데리고 불한 할둔[山]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을 때, 두이랑 背後에서 텅기릭[江] 下流로 오는 一羣의 遊牧民을 보고 아우 도부 멜겐에게 말했다. 「텅기릭河 下流로 오는 遊牧民의 車의 前室 안에 한 계집 아이가 앉아 있다……」). p. 7.

[KM 7], [B 14]은 duyirang giridü 까지를 山名으로 보고 있으나, 여가 該當한 것으로 생각되는 句節을 元朝秘史에서 보면 山名은 düyireng 만이고 그 뒤에서는 gerü-deče 가 온다. gerü 에는 「背後」라는 傍譯이 있다. 또 [U]에서도 düireng gerü-deče 로 되어 있기 때문에 筆者는 여기 따라 解釋했다. giridü 는 giri-dü 일 것이며 giri 는 元朝秘史의 gerü 와 同一하고 -dü 는 與處格語尾이다. gerü-dü 가 kiri-lü 로 變化하여 意味不明의 낱말이 되자 -dü 를 格語尾인줄 모르고 kiridü 全體를 한 낱말로 보고 또 그 뜻을 모르기에 이것을 山名으로 본 것이다.

ölcigen 은 元朝秘史에 보이는 特殊한 낱말이다. 이것은 「車의 前室」

(5) 那阿遙世 譯註, 成吉思汗實錄, p. 4 完勒只格 (明譯 車前, 車의 前室)

을 意味하는 것으로⁽⁵⁾ Vladinircov 는 이 낱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⁶⁾

Certain véhicules portaient le nom de *qara'utai* (ou *qara'utu*) *tärgän*. La lanque mongole a conservé cette dernière dénomination qui désigne aujourd'hui un chariot (du type connu en Russie sous le nom de arba). Les chariot *qara'utai* *tärgän* s'appelaient aussi *oljigätai* *tärgän*. C'est à-dire: "chariot avec avant-train pour s'asseoir."

(6) *man-i ende oyira kümün ügei bayırad*(여기는 우리들의 가까운 사람이 없다)
p. 8.

[B 115] Near us there was no man. [KM 8]「われわれの處には男とて居ないのに」. [OA 175]「吾等の處に、縁者はおらずあるを」등으로 [B]는 *oyira* 를 「附近」의 뜻으로, [KM]는 이 낱말을 翻譯하지 않고 있다. [OA]만이 「縁者」로 翻譯하고 있으나 適當한 譯語가 아니다. 이 句節은 Alung 700a가 男便과 死別한 後 男便이 없는데도 아이를 낳은 것을 보고 그 아들들이 의심하는 것이다. 즉 아버지가 죽은 뒤 그 어머니는 蒙古의 慣習에 의하면 가까운 親戚과 다시 結婚할 수 있다. 그런데 Alung 700a에게는 다시 結婚할만한 사람이 가까운 親戚中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oyira kümün* 은 本稿에서와 같이 「가까운 (親戚關係)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 (*oyira*의 原 뜻은 「가까운」). 이것은 우리 말의 表現과 同一하다. [SH 18]의 該當 句節에는 다음과 같다: *ene eke bidan-u aqa de'ü üye qaya kü'ü ügei ere ügei'ü bö'etele ede 7urban kö'üd töre'ülbi* (어머니에게는 兄弟 親戚도 없고 男子도 없는데 이 세 아이를 낳았다). 여기서 *aqa de'ü üye qaya kü'ü*를 黃金史에서는 *oyira kümün*으로 表現한 것으로 생각된다.

(7) *bodunčir-tu 7oul dumda da7ai-tu qotong sir7ul-i mori ögbe*(보돈칠에게는 등 가운데 鞍傷이 있는 벗겨진 꼬리의 말을 주었다). p. 9.

(6) B. Vladionitcov, *op. cit.*, p. 50. fn. 5.

[B 116]은 qotong 을 qotoγor 와 같은 낱말로 보고 「with a concave back」로 翻譯했다. 또 [OA 69]는 「短尾」로 翻譯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譯語에는 수긍할만한 理由가 없다. 元朝秘史 (§ 24)에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는데 注目된다. *Bodončar uruγ-a ese toγaγdaγu ende atala ʃaγun kegeü ɣol daγaritu ɣodoli segültü oroγ šingɣula-yi unuγu*(보는찰은 親戚으로 생각되지 않아, 「여기 살아서 무엇하느냐?」고 등에 상처 있고 벗겨진 꼬리의 靑白馬를 타고). 여기서 ɣodoli에는 「秃」이라는 傍譯이 있으며 이 句節은 分明히 위의 黃金史의 句節과 關係가 있다. 그러므로 筆者는 元朝秘史의 ɣodoli 와 黃金史의 qotong 을 서로 關聯 있는 낱말로 보았다.

(8) **buru qarčiγai.** p. 9.

方言集釋(飛禽類)에 의하면 「秋鷹, 보라매」의 譯語가 보인다.

(9) *baγatur daritai. očoqon goyar degü-ben abču anglan yabuqui-dur*([이슈게이가] 다리타이 [와] 오초흔 두 아우를 데리고 사냥갔을 때). p. 11.

黃金史에서는 [G], [P₂]에서 두 낱말 사이에 點이 있다. 그리고 [SS 60]에 의하면 *bartam baγatur*에는 네 아들이 있고 그 이름은 *γisüge baγatur, negün tayisi, menggetü sečen, daritai očoqon*이다. 또한 元朝秘史 (50)에서도 *bartam baγatur*의 네 아들은 *menggetü kiyan, nekün tayidzu yesügei baγatur, daritai odčigin*이기 때문에 黃金史에서도 *daritai očoqon*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人名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 黃金史의 記錄은 正確하지 않다.

(10) *ögelen eke-se tatar temüjin-i talaqa talaγi irekü-dü nigen nuγun köbegün töröbe*(외게렌 에케에서, 타탈의 테뮤진을 捕擄로 잡아 왔을 때, 한 아들이 태어났다). p. 12

*talaqa*는 *tala-γan*에서 final -n가 脫落되고 蒙古文字 γ에서 두 點이 떨어져서 *talqa*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G]에서는 *talγa*로 나타난다. *-γan*은 *deverbal nomen*을 形成하는 接尾辭, *tala-*는 元朝秘史에서 볼 수 있

다 : [HW 133], 擄, plündern. eke-se 의 -se 는 奪格語尾 -eče 의 口語形이다. 이 句節의 前後文脈과의 뜻을 綜合해서 보면 「tatar 人이 temüjin 을 捕擄로 잡아 왔을 때, ögelen eke 에서 한 아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temüjin 이라 命名했다」의 뜻이다.

(11) kiyud yasu-tu borjigin omoy-tu **quda** köbegün qamiyasi yabunam. (키윤部 불지킨部族의 사돈과 아이여 ! 어디로 가는가?). p. 12.

[OA 95, 145]의 「親族」는 合當한 譯語가 못된다. quta 는 婚姻關係에 의해서 親戚關係가 맺어진 兩家 사람들이 서로 부르는 國語의 「사돈」에 該當하는 것이다.

(12) γaγča köbegün-iyen temüjin-i oiqonud-tu kürčü eriün **odui** geǰü (올호눔에게 한 아들 테뮤진의 아내를 찾으로 간다고 말함). p. 12.

odu-i 의 -i 에 관해서는 § 45 參照.

(13) yisügei bayatur γaγča köbegün-iyendei sečin-dü qos morin-iyen öǰü (이슈게 이 바가들은 아들 데이 세친에게 한쌍의 말을 주고). p. 13.

原文에 의하면 temüjin 은 의아들(γaγča köbegün)이라 하크 있으나 事實과 다르므로 譯文에서는 γaγča 를 翻譯하지 않고 다만 「아들」이라고만 해왔었다. 모든 異本에서는 γaγča 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γaγča 는 혹 다른 뜻을 表示하는 것이 아니었는가도 생각된다.

(13) oyu-tu törögsen **učin eke**

uqaya-tu törögsen köbegün-iyen.

uryuγsan manggir-iyar ürgü-ǰi teǰgeǰü

ulus-un-iyar eǰen bolγabai.

ǰang-tu törögsen učin eke.

ǰiyaya-tau törögsen köbegün-iyen.

ǰirama ǰiyasun-iyar teǰgeǰü.

ǰiyaya-tu qayan-i oron-dur oroγulbai

(충명하게 태어난 夫人 어머니.

현명하게 태어난 아들을

들파(野生葱)로 항상 양육하여
 나라의 君主로 삼았다.
 마음씨 곱게 태어난 夫人 어머니,
 天命으로 태어난 아들을 작은 물고기로 양육하여
 天命의 王位에 앉혔다.

[B 119]는 ućin eke 를 固有名詞인 人稱처럼 보고 있으나, ućin 은 「夫人」(cf. [HW 161])이다. 따라서 筆者는 ućin 과 eke 를 同格으로 보았다.

이 句節을 韻文으로 整理하면 위와 같고 다음과 같이 頭韻과 脚韻을 맺고 있는데 注目된다. 이 뒤에 계속되는 二聯은 類似的한 內容을 反覆 表現하고 있으며 韻關係도 同一하다.

x	a
x	b
x	c
x	d

ĵirama, cf. [HW 90] ĵiramut (pl. von ĵiram?), 小魚兒 kleine Fischen 75. ĵirasun 은 「魚」[MJ 1509]. 本稿에서는 單純히 「물고기」로 翻譯해두었다. 勿論 「작은 물고기」—이렇게 翻譯해도 無妨할 것이다. 여기서는 元朝秘史의 ĵiramut 에 대한 單數形이 나타나는데 注目해야 할 것이며 Haenisch 가 ĵiramut 를 複數形으로 본 것은 옳다. ĵiramut 의 -t 는 複數語尾.

(14) tan-dur següder-eče öbere nökür ügei. segül-eče öbere čučaγa ügei gebe(너희들에게는 그림자 以外는 다른 친구가 없다. 꼬리 以外는 채찍이 없다).
 (p. 14).

čučaγa 에 관해서는 元朝秘史, [HW 27] cicu'a (「鞭子」Peitsche 76) 와 同一한 낱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 該當한 句節을 元朝秘史(76)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se'üder-eče busu nökör ügei, se'ün-eče čiču'a ügei bui(그림자 以外는 친

구가 없고, 꼬리 외에는 채찍이 없다). 이것은 「외롭다」라는 뜻을 強調하는 蒙古語 固有의 表現이다 : [KD 1363] segiüder-eče öbere nökör ügeir segün-eče öbere čičuγ ügei (Il n'y a d'autre compagnon que l'ombre; il n'y a pas d'autre houppe que la queue. c.à.d., pauvre comme un rat d'église; privé de secours, pauvre). 이와 同一한 表現은 아직도 Ordos 方言에 남아 있다. Mostaert 의 Textes Oraux Ordos, p. 584에 의하면 「妻子도 家族도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라는 뜻으로 다음과 같은 句節을 들고 있다.

sudērēs örö nöχkχör ugui,
suiēs örö dza'ts'ug-gui

(15) köbegun t^e qadan-du siγaǰu dobtolaqu **qasuγ salbar** metü qarbisun-iyān qaǰıqu qara noqai metü boruγan edür dobtolqu börte činoa metü **čoyirung-iyān** čimüge qaǰıqu buyura metü baruiqu-du dobtolqu **baruγ** mettü. bariǰu ülü bolqu baras metü köbegun-i min-i yaγun ele bolγaba (아희들아! 너희들은 절벽에 가까이 달려드는 때처럼, 제 胎를 깨무는 개처럼, 비 오는 날 달려드는 푸른 이리처럼, 제 뼈를 깨무는 암낙타처럼, 저들어서 달려 드는 개처럼, 잡을 수 없는 호랑이처럼, 내 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냐?). p. 15.

Salbar 은 Poppe 의 Mukaddimat al-Adab (16)에 의하면 「猛禽」으로 나타나 一般辭典에서는 볼 수 없다. qasuγ 는 不明. 本稿에서는 「사나운 때」로 暫定的으로 意譯해 두었다. cf. salbar [爪], (鳥)爪, [MJ 944].

čoyirung-iyān čimüge qayıqu 의 čoyirung 에 대해서는 相異한 見解가 있으나 ([LB 121], [OA 128], [KM 17]), 筆者가 보기에는 全部 合當하지 않다. 그러나 正確한 뜻은 不明.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暫定的인 譯語만을 提示했다.

baruγ : [OA 117]는 單純히 「ベロツク」로, [KM 17]는 「番犬」으로 翻譯하고 있으나, 이 baruγ 은 土耳其語의 baraq 와 同一語로 생각된다. baraq : langhaariger Hund, der nach dem Volksglauben aus einem der beiden Eier eines alten Adlers entsteht.⁽⁷⁾ 本稿에서는 便宜上 「사나운 개」로

(7) C. Brockelmann, *Mitteltürkische Wortschatz* p. 31.

翻譯해 두었다.

(16) onon-i **tüng-dür** sem-iyer örüjü niyuba(오는 [江邊]의 숲에 살며서 들어
가서 숲었다). p. 15.

[KM 18]의 「洞穴」은 誤譯이다. 이 **tüng** 은 元朝秘史의 tung과 對照되
었어야 할 것이다. 「斡難訥(河名的) 屯(林)」의 「屯」과 同一한 낱말로 보
아야 한다. [HM 154] tun=wald.

(17) tei eki-dü qurya(두 어미 젖을 먹는 새끼 羊). p. 18.

[KM 22]는 「二歳の羔」로 또 [OA 138, 411]는 「仔羊」로 翻譯하고 있
으나 모두 誤譯이다. [B 124]는 元朝秘史(87)의 該當句節인 tel quriqan
(喫二母乳的羔兒)를 考慮하여 a lamb which had sucked two ewes 로 翻
譯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 can not trace the word *tel*
with the meaning 'double', but from the gloss in the Secret History this
seems to be its general meaning. [KD 1719]에서는 tel qurayan(=brébis de
deux, ou de trois ans)이 보이나 여기서는 tel 과 del(=la criniète)를 混
同하고 있음이 明白하다. 이와 類似한 뜻은 kalmück 方言에서도 보인다.
[RK 390] tel(=ein trierjunges, das auser mutter noch eine amme hat).
그러나 이 낱말의 原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Ordos 方言으로 생각된다.
[MD 655] *t'el* dans *t'el x^mrga* (=agneau qui tette deux mères; *t'el e^kx't'i*
x^mrga id. 이 後者의 語句는 黃金史의 그것과 同一하다. 따라서 [P₂]의
el ekidü qurya 는 tel eke-dü qurqa(n)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cf. G, P₂).
또 이와 類似한 表現으로 tere xojor Dzaglig jisui Guundu t'el Gox^kχūldzi
arāyan onDorowa(Mostaert, Teytes Oraux Ordos, p. 229)가 보이는데 이
경우의 tel Gox^kχūl- 은 laisser sucer à un jeune animal le lait de plusieurs
mère 을 意味한다(*Ibid.* 740, MD 655). 따라서 筆者는 本稿에서 「두어
미의 젖을 먹는 어린 羊」으로 본 것이다.

(18) eĭen qoyina-ača inu. belgetei tarbaγčilaγsan dargi qongγur-i unuĭu nekebe.
(君主는 그 뒤에서 벨게테이가 탈바간 사냥할 때 타는 벗겨진 꼬리의 黃馬를 타고 쫓았다). p. 18.

Tarbaγan 은 [B 124]와 같이 mormot 의 一種으로 생각되나 우리의 말로 正確한 譯語가 없기에 原名을 그대로 寫音해 두었다. dari qongγur 을 [OA 181]는 [SS 68]에서와 같이 固有名詞인 馬名으로 보고, [KM 23]는 「ダルキといふ栗毛の馬」로 翻譯하고 있다. [SH 90]에는 dargi oqodur qongγur (dargi oqodur=秃馬, qongγur=黃馬)가 보인다. [HW 32]에서는 dargi ohodur 秃馬 (mit) Stummenschwanz, 또한 同書(122)에 ohodur (=ohatur)秃馬 Stummenschwanz 도 보인다. 여기 관해서 [B 124]는 秃馬가 [HW]에서처럼 stump tailed 가 아니라 bold tailed 임을 注意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元朝秘史에 따라서 「벗겨진 꼬리의 黃馬」로 翻譯한다.

(19) sirγa (붉은 노란 색의 말). p.18. 말의 색깔을 表示하는 이 낱말은 앞에도 數次 나왔으나 正確히는 淡黃色(붉은 노란)색의 말을 意味한다. cf. A. Mostaert, *Sur quelques passages de l'histoire secrète des mongols*, pp. 29—30.

(20) erü- (걱정한다). p.19

Erü- < [SH 93] herü-. [HW 75] heru-, 愁 traurig, betrübt sein. cf. A. Mostaert, *Erdeni-yin Tobci* (Scripta Mongolica (II), I (Introduction), p. 68.

(21) yisügei eĭen-dü sitüjü bölüge (에스게이 君主에게 婚姻선물을 주었다). p. 20.

[KM 21]은 單純히 「与へたものとして」로 또 [OA 158]는 「頼って」, 同書[182]에서는 「(イスゲイ主に) 頼りあいし」로 翻譯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誤解이다. 黃金史의 sit- 는 元朝秘史(86)의 sitkül 과 同一한 語根임이 確實하다. sitkül 의 意味로 元朝秘史의 對譯漢語는 「一見公姑的禮」이다. cf. [HW1 42] Besuchsgeschenk für die Schwiegermutter. A. Mostaert,

Sur quelques passages, p. 31—32. Vladimircov 의 說明이 參考된다 : La polygamie était un fait coutumier, mais la première femme était toujours considérée comme étant l'ainée. Au cours de la première présentation à sa belle mère, la promise accomplissait certains rites déterminés et lui présentait des cadeaux *sithkül*, de la part de sa propre mère. (*Le Régime social des mongols*, p. 58)

(22) 1. **aṛta-yin terigün ʔarju ireküi-dür adali**

2. **manglai-yin sara malaṛa wčir boluṛsan**

3. čig metü ebkenigsen

4. čilaṛun metü ʔanggidaṛsan

5. auqa küčün noküd següder min-u

6. qulusun metü ʔergelegsən

7. qota metü küriyelegsən

8. alba-tan čireg-üd min-u

9. sonuṛsan ta.

10. üdele yabuqui-dur **idam bariqu** metü yabu:

11. idebkilekü toṛoliqu üiles-tür itelgü sibayun metü toṛolin dobtolun yabuṛtun ta:

12. naṛadu čaṛadu-luṛa čabčilalduqui-dur načın sibayun metü toṛolin dobtolun yabuṛtun ta.

13. saṛun bayın yabuqui-dur solongṛa biraqu metü yabu ta.

14. **sorobkilaqui** idebkileküi üile-dür songqur sibayun metü dobtolun yabu ta.

15. qančın iniyeldün yabuqui-dur qašang qara biraqu metü qaničın yabu ta

16. qari-tan dayisun-luṛa qarbulalduqui-dur qarčiqai sibayun metü toṛolin dobtolun yabu ta.

17. ölüsügsen bars metü üyügegsen bürgüd metü yabu ta.

18. gegen edür gendü činoa metü yabu ta.

19. qarangṛui söni qara kereye metü qataṛučin yabu ta

20. ʔötegergegčı qatun kümün metü qataṛučin ta.

1, 驃馬의 머리가 나오는 것 같이,

2, 이마의 별과 冠의 頂子가 된,

3, 발(簾)처럼 감겨진,

4. 돌처럼 뭉쳐진,
5. 나의 힘센 날 따르는 者들이여!
6. 대(竹)처럼 늘어선,
7. 城처럼 둘러싼,
8. 나의 臣下 軍들이여!
9. 너희들 듣거라!
10. 日常 걸을 때는 송아지처럼 걸어라!
11. 재빨리 攻撃하는 일에서는 매(兎鶻)처럼 襲擊해 가라! 너희들!
12. 이[쪽] 저[쪽]과 서로 칼싸움 할 때는 오리 잡는 매처럼 襲擊해 가라!
너희들!
13. 生活할 때는 족제비 두살 송아지처럼 걸어라! 너희들!
14. 威壓하고 襲擊하는 일에는 매처럼 덤벼들어라! 너희들!
15. 交友하고 서로 웃고 지낼 때는 느린 검은 두살 송아지처럼 사귀고 지내
라! 너희들!
16. 外敵과 활 쏘 때는 매처럼 襲擊해가라! 너희들!
17. 굵주린 호랑이처럼, 굵주린 독수리(鵟鷹)처럼 가라! 너희들!
18. 밝은 날에는 숫늑대처럼 슬며시 가라! 너희들!
19. 어두운 밤에는 검은 까마귀처럼 참고가라! 너희들!
20. 질투하는 女子처럼 참고 가라.

成吉思汗이 軍士들 앞에서 외치는 말인 이 韻文은, 特히 첫行부터 9
行까지는 黃金史에서 가장 翻譯하기 어렵고 問題가 많은 句節이다. 먼
져 從來 이 句節이 어떻게 翻譯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KM 27]는
「驃馬の頭が突進して來る如くである. 黃帽の頂子となったチク(?)の様
である. 疊んだ石のやうに, 結んだ刀の力, 儂が友の影よ! 竹の様に並
んだ城の如く, 周圍のわが官人, 軍人よ聽け!」. [OA 163]는「驃馬の頭
が出で來るが如し, と. 兜の額の黃金鉄となれる凝點の如く團結せる, 冠
の金剛石となりし石の如く凝固せる, 力强き我が友人よ, 竹の如くたち並
べる, 城壁の如く圍繞せる, 吾が臣下なる兵士等よ, 汝等よ, 聞け」. [B
129] 「You, my companions and followers who are my strength;(you) who are

the forehead piece and the button on the hat; rolled up p like a pigtail, heaped together like stone, as when the heads of (your) geldings are coming forward; ranged like reeds, girt in like fortresses, you my tributary armies, listen!..」 이들 翻譯을 보면 이 句節이 얼마나 翻譯하기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먼저 [KM]의 譯文은 상당히 恣意的이며 [OA], [B]도 正確性を 期하려고 努力한 흔적이 보이지만 [OA]는 오히려 지나친 像想에 기울어진 것 같고 [B]는 要領不得이다. 이 句節을 正確히 把握하기 위해서는 먼저 押韻關係를 正確하게 理解할 것과 또한 čig 의 正確한 意味를 把握할 것이 要求된다. 그러나 筆者가 보기에 는 위에 引用한 三者가 다 같이 이 점을 正確하게 理解하지 못한 것 같다. 다만 [OAIL, 19]만은 本句節의 押韻關係의 重要性을 強調하고, 이것이 本句節의 解釋에 先行되는 條件임을 지적한 것은 實로 卓見이다. [OA]에 의하면 먼저 몇 가지 異本을 對照하고 句讀點을 考慮하여 押韻關係를 다음과 같이 整理하고 있다. 本文의 解釋에 不可缺한 것이기에 다음에 [OA]의 整理方法을 보기로 한다.

manglai-yin sara	}	boluγsan	{	čig metü ebgenigsen	}	auγ-a küčün	}	sonusu-
malaya-yin wčir			{	čilaγun metü ǰanggiduγsan	}	nököd		
			{	qulusun metü ǰergelegsен	}	albatan	}	γtun ta
			{	qcta metü küriyelegsен	}	čiregüd min-u		

그러나 筆者는 이 句節을 다음과 같이 보다 簡單히 整理하는 것이 오히려 便利할 것으로 생각한다.

- | | | |
|-----------------------------------|---|------------|
| 3. čig metü ebkenigsen | } | Ist stanza |
| 4. čilaγun metü ǰanggiduγsan. | | |
| 5. auqa küčün nöküd següder min-u | | |

- | | | |
|-----------------------------|---|------------|
| 6. qulusun metü ĵergelegsен | } | 2nd stanza |
| 7. qata metü küriyelegsен | | |
| 8. alba-tan čireg-üd min-u | | |

위와 같이 3—5, 6—8이 頭韻과 脚韻을 整然히 밍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3—5, 6—8는 다음과 같은 두 聯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頭韻)	(脚韻)
x	a
x	a
y	b

그러므로 그의 boluysen 을 [OA]는 3의 čig 에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것은 čig 의 正確한 意味를 잘못 본 탓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것은 2行의 全文이 正確히 解釋되고 그 正確한 뜻을 把握하지 못하는 限 boluysan 이 어느 낱말에 걸리는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筆者는 本稿에서 從來 正確하게 解釋되지 못했던 čig 은 [B]와 같은 pigta 도, [OA]와 같은 「凝點」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一般辭典에는 보이지 않으나, 바로 華夷譯語(10b)의 「赤黑」(簾)과 同一한 낱말로서 [KD 2174]에서는 natte 로 佛譯되어 있는 것이다. 房門에 걸어 놓는 「발」을 意味하는 것이다. 즉 「발이 감겨진」 것과 같이 軍士들이 첩첩히 둘러싸고 있는 것을 비유하여 表現한 것이다. Mo. čig 은 華夷譯語의 그것과 같이 中期土耳其語의 cyr 와 同一語源이다. 頂子란 清朝時代 官吏의 位階를 表示하기 위해서 장식하는 帽珠이다. 이것은 一種의 權力의 象徴인 것이다. 그리고 manglai-yin sara 를 [OA]처럼 「兜の額の黄金鐵」같이 翻譯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句節이 그의 aᵛta-yin terigün 과 關聯이 있을 것이기에 「鬪馬의 머리」에 대한 「이마의 星點」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1, 2를 筆者는 本文에서와 같이 翻譯한다. 3에서는 現在까지 翻譯하는데 그다지 큰 問題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것이 무엇을 表現하는 말인가를 除去하고, 2에서는 manglai-yin 와 malaya-yin wčir

이 다 같이 boluysan 에 걸리는 즉 sara 와 malaya 사이에 接續詞가 省略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manglai-yin sara 는 소나 말의 이마에 있는 별(星) 같은 點을 意味하며, malaya-yin wčir 에서 malaya 는 帽子, wčir 은 中國語로 「頂生」으로 翻譯되는 것이다. 暫定的으로 nomen perfecti 로서의 boluysan 은 5의 nöküđ següder 과 8의 alba-tan čireg-üd 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두었는데 이것은 暫定的인 試譯임을 밝혀둔다. 本句節은 qasar 이 王位에 오른 成吉思汗에 叛亂을 일으키며 sübegete baγatur 로 하여금 이들을 추격시키기 위해서 많은 軍士를 召集해놓고 軍士들을 向해서 하는 말이다. 먼저 1—2를 直譯하면 다음과 같다. 「驃馬의 머리가 나오는 것 같다」는 것이다.

cyγ=ein aus Artemisiablättern geflochener Vorhang⁽⁸⁾. 故 Mostaert 神父는 筆者에의 私信에서 (1963, 3. 10付) 筆者의 čig 에 관한 解釋과 韻關係의 整理나 ולם을 是認하고 ebkeni-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

Le *ebkeni-* ne signifie pas 'entoures'. C'est un dérivé de ebke- 'mettre en rouleau'. 그리고 原文 2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l me qu'il n'est pas impossible que les mots *aγta-yin terigün γarju ireküi-dür* présentent un texte tronqué, corrompu, surtout les mots *γarju ireküi-dür*. 이러한 可能性을 생각할 때, 여러 研究에서와 같이 特히 1—2의 解釋에서 지나치게 想像에 기우러지는 것은 危險하다. 오히려 直譯만을 提示해두고 더 具體的인 研究는 將來의 研究로 미루어 두는 것이 賢明한 것이다. 또한 從來의 研究例에서와 같이 1—2를 無理하게 翻譯하려 할 때, 그 다음 句節까지 曲解하게 될 可能性도 있는 것이다.

Idam bariqu: [B]에 의하면, Mostaert 는 idam 을 「守護神」, bariqu 는 birayu 로도 보는 것 같으나, idam birayu 는 複合語로서 「송아지」를 意味한다. [MJ 231] 「犢牛」小牛.

(8) C. Brockelmann. *op. cit.*, p. 54,

Sorobkilaqui : [G]의 *sürübkilekü* 를 考慮하여 本稿에서는 暫定的으로 [OA 24]의 譯語를 擇했다. 그리고 5의 *nöküd segrüde* 를 [B]는 *companions and followers* 로 翻譯하고 있으나 이 두 낱말은 複合語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cf. [RK 341] *nökr sdür*=*Begleiter, suite der(ürstlichen)*. 또한 이 낱말을 從來에는 「友人」으로 翻譯하는 것이 普通인듯 하나, 이 경우 成吉思汗이 自己 軍士에 대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RK]가 보여주는 바와 같은 뜻이 적합할 것 같기에 筆者는 [RK]의 譯語를 擇해서 「날 따르는 者」로 翻譯했다. 그리고 [B]는 8의 *alba-tan* 을 *tributary* 로 翻譯하고 있으나 그것은 中國語로서는 「當差人」으로 翻譯되는 것이다, cf [MJ 70]. 그러므로 筆者는 이것을 「臣下」로 翻譯해 두었다.

(23) *olan ulus ebderebesü oγurčay kümün-ü idesü bolum-ja*(여러 사람이 [서로] 싸우면 孤立된 사람의 밥이 됩니다) p. 23.

[KM 28]「多くの國が破れたらば退く人の食物となりますぞ」. [OA 163] 「衆多の人より離れなれば, 孤人の餌とならん」. [B 130] *If the many people perish, one will become food for isolated men.* 以上 몇 가지 翻譯을 보면 相互 若干의 差異가 있다. 問題는 *ebderebesü* 와 *oγurčay* 에 있을 것이다. *ebdere-*는 [KD 186]에 의하면 *se briser, se détruire; se gâter*. *oγurčay* 은 同書[367]에 의하면 *jeté, rejeté, abandonné : qui n'appartient à personne séparé, isolé*. 그러므로 이 句節에 가장 忠實한 翻譯은 [B]라 하겠다. 萬一 [OA]와 같이 翻譯한다면 *oγurčay* 은 元朝祕史에서 볼 수 있는 「도적」의 뜻으로 翻譯될 수 있는 可能性도 있다. [HW 125] *o'orcah* (=o'urcah 129) ; 劫賊 *Bandit, Strolch, Vagabund(Heimatlose)*. 그러나 *ebdere-*는 「싸우다, 말다툼하다」의 뜻에서 「不和하다」의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cf. [MD 227] *eBdere*=*se quereller, avoir une rixe*. 그러므로 *oγurcah kümün* 은, 서로 싸우고 있으면 團結해 있지 않는 孤立된 한 사람의 밥이 된다는 뜻에서, 「團結하고 있지 않는 단 한 사람」이라는 意味가 될

것이다.

- (24) temüjin tere kümün-i ginji-ber čokijü orkiγsan-dur tere kümün bosuγad barkiyan dayudaba(테무진은 그 사람을 쇠고랑으로 때려 버렸기에 그 사람은 일어나서 소리쳐 불렀다). p. 16.
tere eme-yin jęgün köl-i inu quγa tasiγu orkiba(그女子的 왼쪽 발을 급히 때려버렸다). p. 24.

[B 122]는 위 句節을 다음과 같이 翻譯하고 있다 : Temüjin struck and overthrew this man with his fetters, and that man got up and shouted out loudly. 이 경우 orki-를 overthrew 로 翻譯한 것은 誤譯이다. 이와 같이 [KM 19]는 「ラムチンはその人を鉄の鎖で打ちのめしたので……」로 그리고 [OA 180]도 「テムチンは、その人を鉄の鎖にて打ち倒せるに……」로 翻譯하고 있으나 orki-는 descriptive verb 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⁰⁾ orki-에 는 勿論 「던지다(抛), 버리다」의 뜻이 있다. 그러나 orki-는 現代國語에서와 같이 口語的 要素를 많이 反映하는 옛 文獻에서는 converbum imperfecti 와 連絡해서 使用될 때는 descriptive verb 로 使用되는 경우가 많다. 國語에서 「뺏어버리다, 잃어버리다, 썩 버리다」라 할 때, 「…버리다」에는 元來의 뜻이 없고 다만 어떤 動作의 遂行・完了를 強調할 뿐이다. 이 用法과 꼭 같은 것이 orki-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句節을 國語로 解釋한다면 「……을 때려 버렸다」가 된다. 이 用法을 認識하지 못하고 「던지다」의 뜻에서 「(때려)놓히다」로 본 것이 [KM], [OA]의 解釋이다.

위에 引用한 다음 句節에 대해서도 [B 130]은 誤譯하고 있다. He struck her leg and knocked her down. [KM 29] 역시 「その女の左の脚を折って棄てた」와 같이 orki-의 用法을 모르고 있다. quγu 에 관해서는 [RK 195] 參照 : χ“γ”=mit einmal, plötzlich weg.

- (25) toγtaqui-yi darqalaba. tegün-ečę darqad omoy-tan bolba(툽타하이에게 달

간의 特權을 주었다. 여기서 [그는] 달간의 姓을 가지게 되었다). p. 24.

Darqala-: [KD 1678] accorder un privilège à qn. darqala-는 darqa-la-, darqan 에 관해서는 P. Poucha 의 Die geheime Geschichte der mongolen, p. 153 參考.

Der Titel ist chinesisch : *darqan* aus chin. (Karlgren 957) *ta* <*d'ât*, (298) *kan* <*kân* bzw. (447) *kuan*<*kuân*, und schon altrürkisch *tarxan*, *tarqan*, plu, *tarqat* hoher, Adelsrang, gr. *ταρχάν* belegt, vgl. Bailey a.a O., S. 85 ff., auch in Khotanischen als *ttarkani*, *ttarkana*, *ttarakana* vorkommend.⁽⁹⁾

dargan 은 原來「自在」의 뜻이었으나 ([HW 32] *darhan*=自在, frei-unabhängig, pl. *darh*<*n*>*t*), 「免稅된 特殊한 階層의 사람」을 表示하게 된다. 參考로 土耳其語에서는 「指揮官」의 意味가 있다. *tarxan*=Befehlshaber.⁽¹⁰⁾

(26) *yeke üge ügületele yeke ümkü gele*(큰 말할 때는 크게 [입을]문다). p. 26

[B 132] Big words of boasting mean a big mouthful. [KM 31] 「何といふ大言壯語するのだ」. [OA 165] 「大言をはく間にいたく鍛練すべし」. 모두 誤譯이다. [OA]는 同書(55)에서는 「大なき言を云ふ間に大いに口を含め」와 같이 直譯하고 있는데 「いたく鍛練すべし」로 意譯한 것은 理解하기 困難하다. 이 句節의 뜻은 「큰 소리하고 싶을 때는 입을 한번 물어서 큰 소리를 하지마라」라는 뜻이다.

(27) *baras ger-tei buya solongya qoyar otoy inje-tei ongroča-bar a:teqəni nɔq*
(虎皮[로 지은] 집과 더불어 부가 소릉가 두 部族의 하닐<下典>을 띠로 [실어] 데리고 왔다). p. 28.

[KM 35] 「虎や家やソロンガの二村の從遵者を添へて、舟で連れくると」
[OA 166] 「虎皮の家と共に、ボガ・ソロンガ二部族のインヂユ(引出物)をのせる舟にて連れ來れり」. [KM]는 正確한 뜻이 表現되어 있지 않다. [H

(9) P. Poucha, *Die geheime Geschichte der Mongolen*, Praha 1956 p. 15.

(10) C. Brockleman, *op. cit.*, p. 198.

W 82] inje=從嫁, Brautgeteil(von chines. 媵 *yin* Brautjungfer?). 蒙古의 諸王은 그 딸을 結婚시킬 때, 一定數의 albatu를 딸려보냈는데 이 albatu는 下典으로 이것을 inje라고도 한다. Les seigneurs mongols donnaient habituellement en dot à leur fills une certaine quatnité de leur *albatu* (*inji* ~*inzu*). Vladimircov *Le régime social*. p.211

(28) **baras ger-ün öngge-dür** bolju:boyda ejen qulan qatun-luγa dere nignedbe (虎皮 집의 色[情]에 빠지셨습니다. 聖主는 후란皇后와 同寢하셨습니다). p.31

[B 134]는 I have been in(? indulged in) the beauty of tiger(skin) houses 로 또 [OA 167]는 「虎皮の家の色香に迷い」 등으로 直譯・意譯하고 있다. 筆者는 前後文脈을 考慮하여 「...에 빠졌다」로 意譯했다. öngge는 單純한 beauty가 아니라, 「色情」으로 翻譯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普通 뜻인 「顔色」으로 取한다면 앞뒤의 關係를 連結하기가 어렵다. 「虎皮집의 용모(또는 안색)」이 되기 때문이다.

무후리가 벨테겔친 皇后에게 告하는 말인 다음 句節에서 [B 134]는 「君主의 命을 알리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以下の 文章의 主語를 君主 自身이 自己를 말하는 것으로 보고 The rule which I established is no more. The power of *my* strong desire exisis.....I, the Holy Lord, have slept with the Queen Qulan 과 같이 一人稱代名詞로 翻譯하고 있으나, 이것은 무후리가 君主가 이러저러 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무후리가 說明하고 있는 君主를 主語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29) **erkei-tü mergen** ergi noγusun qoyar-i qamtu qarβun gele(활 잘 쏘는 사람은 江邊의 오리 두 [마리]를 한꺼번에 쏜다고 한다). p. 31-32.

[B 135] a hunter with a thumb. [OA 167] 「拇指のある善射者」. [KM 39] 「力のある善射者」. 모두 誤譯이다. mergen은 元朝秘史에서 人名에 쓰이며 「善射者」라는 傍譯이 있다 : Namen mit -mārgān “geschicht, *Bogenschütze*.” wohl seit ältesten Zeiten als Titel gebraucht, wenn man nach

den Namen des Stammbaumes urteilen darf. P. Poucha, *Die geschichte der mongolen*, p. 55. erkei-tü 을 [B], [OA]는 直譯하고 있는데, 이것은 黃金史 p. 40 (2行)에 있는 köl-tü(morin)와 類似한 表現이다. 이렇게 본다면 單純한 「엄지손가락 있는(善射者)」가 아니라, 「힘 있는」 혹은 「힘센」의 뜻이 아닌가 생각된다. Kalmück 方言에서만 erkei 에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 erkē = (1) daumen, (2) sporn(des hahns), (3) männlich [RK 125]. 그러나 本稿에서는 다만 「활 잘 쏘는 사람」으로 翻譯해 두었다.

(30) **amlig** mori degere-ben emegel toqutuyai gemüü(길들이지 않은 말 위에 안장을 얹으라고 한다). p.32

Amlig 는 [P₂]의 emlig 을 취한다. [OA 107], [KM 40]가 「駒を生んでない」로 본 것은 誤解이다. cf. [KD 217] emlig = non dressé (un jeune boef, un cheval): sauvage, effréné

(31) **sütü-yin sarqad-i** suγun-dur inu. erke-tü-yin sarqud-i ebčigün-dür(乳酒를 겨드랑이 밑에 [그리고] 強酒를 그의 가슴에) p. 32.

[B 135] Making him take spirits at his armpit for the Fortunate One and spirits on his chest for the Powerful One. [OA 167] 「振舞酒をその腋の下に, 馳走酒をその胸にもたしめて連れて來れば」. [KM 41] 「洪福のある人の酒を腋の下に, 力のある人の酒を胸に抱いて連れて來ると」. 이 句節에서 sütü-yin sarqud 와 erke-tü sarqud 의 解釋이 各者 다르다. 먼저 sütü 의 意味를 正確하게 抱握하고 있지 않다. sütü 은 「젖(乳)」을 意味하는 낱말이다 : sütü = avec du lait, de lait : aigu affilé, tranchant [KD 1427]. 그리고 sütü < sün-tü 로 생각되는데 sün 은 [KD 1421]에서 lait 를 意味하기 때문에 sütü-yin sarqud 는 젖을 原料로 한 一種의 술로 생각된다. cf. Tur. süt = Milch (Brockelmann, op. cit). 이렇게 볼 때, erkü sarqud 도 어떤 強酒로 생각되는 것이다. [B], [KM]는 sütü 를 P₂, G, U 의 sutu

로 보고 있는 것 같으나, *süiti* 를 그대로 忠實히 翻譯한다면 위와 같은 筆者의 解釋도 可能하지 않을가 생각한다.

(32) *dalan kele-tü čaγčayai čaγč'in dongγudqui-dur jaγalamai mergen-i toyolin dobtolan ireküi-dür ǰang gekü daγun-ıyan γarγan ese čidaba kelen*(七十의 혀를 가진 까치가 지저귀며 노래할 때, 큰 매가 襲撃해 오면 “장”하는 소리도 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p. 33.

[B 135]에서는 *when the seventy-tongued čaγčayai Čaγcin sings* 와 같이 *čaγčayai čaγcin* 을 原語 그대로 固有名詞 또는 鳥名처럼 翻譯하고 있으나, *čaγč'in* 은 動詞 *caγči* 의 *converbum modale*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čaγči* 는 現代蒙古語辭典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 cf. [OA 133—136]. *jaγalamai* 는 [RK 463] 參照 : *ein aubvogelschwazer, adler mergen* 은 原 뜻대로는 文脈上 翻譯이 不可能하기 때문에 筆者는 *mergen* 이 先行하는 *jaγalamai* 와 關係가 있는 것으로 보고 兩語를 습해서 「큰 매」로 翻譯했다.

(33) *qolčarγan maγu aγasa-ban ese oldoǰu bile*
(輕薄的 나쁜 性格을 얻지 않았읍니다). p. 34.

qolčarγan 이 [G. P₂]에서는 *qolčirγan*, [U]에서는 *qolčirayān*. *-γan* 을 接尾辭로 보면, *qolčir(a)* 가 問題가 된다. 그리고 *qolčarγan* < *qolčirγan* 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KD 933]에 의하면 *qolčir* = *dissipateur* ; *qolčirγan* = *dissipation, prodigalité, luxe, splendeur, magnificence*. 그래서인지 [B 135]는 *I have never acquired evil dissipated way* 로, [AO168]는 「奢_レル」등으로 翻譯하고 있다. 그러나 이 譯語는 前後關係로 보아 적당하지 않으며 특히 [KM 42]가 「惡漢(の)」으로 한 것을 明白한 誤譯이다. 이 句節은 *Arqasun qurči* 가 強酒에 醉해서 경솔하게 醜態를 부린 것을 成吉思汗에게 사과하는 말의 一部分이다. 그러므로 [RK 183] *χol'ts'r* = *leichtsinnig* 와 같은 뜻으로 「輕率한」으로 翻譯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 (34) qoročan-du endegsen min-u ünen: qoračin-dur endeǰü qutuγ-tu quur-i čin-u abču qola sanaγsan min-u ügei bolüge: kemen öčigsen-dür **aman-iyān** sayin-du γaruγsan arqasun qurči min-u **qosing**-iyān saγin-du γaruγsan qurči min-u geǰü.
 (「強酒에 잘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強酒에 잘못해서 神聖한 당신의 胡琴을 들고 주제넘은 생각을 하지 않았읍니다」고 上言함에 「잘 盟誓해준 나의 알하순 **홀치**여! 재치 있게 말해준 나의 **홀치**여!」라고 말씀하시교). p. 34.

Arqasun qurči의 말에 대해서 成吉思汗이 하는 말의 一部分이다. aman (-iyān sayin-du) γar-는 特殊한 慣用句이다. [B 136]는 單純히 uttering your word well로 翻譯하고 있으나, 그다지 적당한 譯語가 못된다. [KD 96]에 의하면 dire의 뜻도 있으나,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에 있는 promettre의 뜻에 가깝다. 그러므로 筆者는 「盟誓하다」의 뜻으로 보았다. 이 句節에 대한 從來의 解釋을 보면 다음과 같다. [KM 43]「善くも口を出したわがアラクソン・ホルチよ! 善くも戯言を出したわがアラクソン・ホルチよ!」. [OA 168]「辯言を巧みに出せる吾がアルガソン・ホルチよ」. [B 136] My Arqasun Qurči uttering your words well, my Qurč' uttering your mockery well. [KM], [OA]는 無意味한 直譯에 가깝고 [B]는 比較的 正確하다 하겠으나, qosing의 뜻을 正確히 把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句節의 全體的 文意가 明確하지 않다. 또 [OA 131]가 「辯舌を巧みに出せる…」, 「口實を巧みに出した」처럼 「辯舌…, 口實…」의 뜻으로 보는 것은 [KM], [B]와 같이 原來의 뜻과 오히려 反對되는 것이다. 이 句節은 술에 醉해서 輕率한 行動을 한 것을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을 들고 成吉思汗이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말이 한낱 「口實」이 되어서는 前後文脈에 맞지 않는다. Arqasun qurči의 말은 自己의 잘못을 是認하고 成吉思汗의 黃金胡琴을 들고 다른 곳에 가서 왔다는 것은 그의 成吉思汗에 대한 忠誠心을 의심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 점을 사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句節에서는 慣習的인 뜻

을 살려서 aman...γar 을 [KD]의 promettre 또는 dabat' slovo (約束한다), kljast'sja (盟誓하다)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¹¹⁾

다음 qosing 에 관해서도 이것을 「虛言」[KM]과 같이 보면, 前後關係로 보아 어색하며 또 [B]처럼 mockery 본 것은 誤譯이다. [OA]의 譯語도 같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차라리 「재치 있게 말한다」의 뜻이 前後關係와 調和한다.

(35) boγda ejen tayičuγud-un jabuγa-yin eme mönggölün γooa-yi **tataju yabuqu** aγsan ajuγu (聖主는 타이추곤의 자부가의 妻 땡규룬 고오아를 데리고 살고 있었다). p. 35.

[KM 44]「連れて行つてみた」는 完全한 誤譯이요, [OA 146, 168]「(…を)納れて過しありき」도 漠然하다. [B 136] The Holy Lord had been using(the wife of Jabuqa of the Tayičuγud Mönggölün γooa,)as a concubine 은 完全한 意譯으로 正確히 文意를 把握하고 있으나 tataju yabuqu 가 忠實하게 翻譯되어 있지 않다. tataju yabuqu 는 國語의 「…을 데리고 살다」와 꼭 같은 表現이라 하겠다. 이 경우의 yabu-는 vivre d'une certaine manière[MD 399]의 뜻에 맞다. yabu-는 「가다」의 뜻 以外에 一般的으로 「살다(生)」의 뜻도 있음에 注意해야 할 것이다[KD 2259].

(36) sayin-u saltar maγu-yi-yin **sarbuγ** gem.

(좋은 색도 나쁜 물감이라고 합니다). p. 38.

이 句節도 從來 여러가지 解釋이 있으나 위에서는 意譯을 提示했다. [KM 48]「善のサルタル, 惡のサルホクと申します(註)」((註)この一句の意味は明瞭でないが, ゴ氏譯文には「善をしようとしたら, 惡が出たといふ意である」と曰つてある). [B 138] It is said the good colouring is bad (sarbuγ). 蒙語源流에는 「妙繪每變色於惡染」 또 滿文譯으로는 「妙彩も惡

(11) A. Lubsandendeba, *Monγol oros tol'* (Mongol'sko-Russkii Slobar'), Moscow 1957. p. 33.

しきに近づかば色變ず」(江 實, 蒙古源流, p. 62). [B 138] sarbuy/sarabuy 의 뜻을 辭典에서 찾아 볼 수 없음을 들고 또 salbar 은 qaltar 에 대한 誤記로 보았다 : qaltar, [KD 800] variété des couleurs; tache, souillure. 蒙古文字 q 를 s 르 잘 못볼 可能性도 없지 않다. 그러나 筆者는 sarbuy 을 sar(a) + buy (혹은 butuy) 의 複合語로 보고자 한다. 「色, 漆」등을 意味하는 文語의 sira 가 Urd. Kh. Bur. Kalm. 등 方言에서 所謂 breaking of “i” 에 의해서 sar(a) 등이 되며 이것이 위의 sar-에 該當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buy (<butuy) 「染料」로 본다면 蒙古源流의 「(惡)染」과 一致한다. 이렇게 본다면 「좋은 色일지라도 나쁘게 물든다」의 文章이 省略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한 本稿에서 筆者가 提示한 意譯과 같이 「좋은 색도 나쁜 물감(이 된다)」의 뜻으로도 취할 수 있다.

(37) **köl-tü mörin-dü ülü ɣartaqu**(힘이 센 말에 뒤지지 않는)p. 40.

[B 139] footed horse. [KM 51] 「脚のある馬」. 모두 誤譯이다. költü 는 하나의 特殊한 뜻을 가진 慣用語로 보아야 할 것이며 直譯으로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一般辭典에는 보이지 않으나, Ramstedt 의 Kalmuck 方言 辭典에 의하면 ; költē 1) mit fuss, füßig, 2) spez. auf grund, wegen, 3) stark, helfig 등이 보이며 여기서는 3) 의 뜻에 一致한다.

(38) **küsbüled köke boro gegči bile**(킷뷔렐 쵸케 보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p. 40.

[B 139] This is my bluish-grey horse called küsbüled. 이 翻譯에서는 gegči 가 마치 küsbüled 에만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原文의 文脈으로는 차라리 küsbüled köke boro 全體가 gegči 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küsbüled 는 kös + bolod 의 複合語로 생각된다 ; k'os dans Gal k'os 'feu'[MD 432]. bolod 銅(鐵).

(39) qabu-tu qasar-i yeke **ǰasaɣ-ača ɣatɣaɣasai**.

(활을 잘 쏘는 화살을 대자삭에서 내보내시라)p. 41.

[B 140] Send out alert-shooter Qasar from the great punishment. [KM 52] 「(善射ハサルを)大ヂヤサクからお出しなされ!」. [KM]는 *jasar* 를 「政事」(더 詳細히는 Vladimircov, *op. cit.*, p. 62 參照)로 보고 있으나 前後關係가 맞지 않는다. 또한 [B]도 *jasar* 와 *γaryarasai* 의 關係가 석연하지 않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直譯만을 提示한다. 그러나 蒙古源流에는 「乞將弟哈薩爾恕免」(江實, *op. cit.*, p. 24)으로 있기에 [B]와 一致하나 蒙古語自體의 正確한 解釋이 要請된다.

(40) *nidün-ü keče* (무릎의 매듭). p. 41.

이 句節은 蒙古源流의 「(即指老嫗之)膝蓋(射之)」에 該當한다. 그러나 蒙古語原文의 *keče*, *nidün* 은 다 그 解釋이 容易하지 않다. 筆者는 *keče* 에는 「매듭」의 뜻이 있기 때문에 「무릎의 매듭」 또는 「膝蓋」와 같은 것으로 보았다.

(41) *gaudai* (鳳). p. 41

[KD 1012] nom d'oiseau fabuleux. [MD 253] *garDi* dans *xaŋ garDi*, l'oiseau *Garudai*, mo. *garudi* <sanscr. [KM 54]에는 「鳳凰」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서로 區別되어야 할 것이다. [五體情文鑑 上卷 p. 879] 鳳凰の鳳, Mo. *garudi*=Ma. *garudai*. 또한 鳳凰의 鳳은 Mo. *gerüdi*=Ma *gerudei*. 本稿에서는 五體情文鑑의 것에 따랐다. [MJ]에 의하면 「ガルタ鳥, 神話ニ傳ハレル不死ノ怪鳥」. 誤譯이다.

(42) *minu olan-dur γurban quγuskiju ebkegsen eriyen qosi olang bui*(내 신바닥에 세번 접어서 감은 무늬 있는 두 띠<帶>가 있다). p. 42.

[B 140] In the sole of my foot is a tripled-folded, rolled up strip, double saddle-girth. [54] 「三つ折りに包んだ斑紋の繩がある」. *quγuski* 는 *quγuski* 로 생각 된다. *quγus* 에 관해서는 [HW 71] *huhus* 折 *ab*(*gebroschen*).

[MJ 664] quγus ki-「二分する」. 또한 [MD 364] quγusla-‘plier.’ olang=olong.
[KD 403] la sangle.

(43) **üküi ünder-i ölkelen** negün-ja (〔山〕南쪽 [기슭에] 따라서 遊牧하리라).
p. 44.

[B 142] They will lead a nomad life along the southern sides of the heights you have given them. [KM 58] 「ハンガイ山の方に遊牧することです」. [B]는 üküi 를 [G]에 딸아서 ögküi 로 보고 이것을 you have given them 으로 보고 있으나, ögküi 로 본다 할지라도 文法的으로 그러한 翻譯은 無理다. cf. N. Poppe, Grammar of Written Grammar, p. 94. The nomen futuri.....Another suffix is -qui/küi-. In the pre-classical language -qu and -qui were used indiscriminately, but in the modern and classical language formes in -qui are used only as substantive nouns, i. e., they serve as subject and object but not as attribute or predicate. 따라서 이 同一한 句節內에서 위 句節에 나온 aγu->ü- 와 같은 變化와 [B]와 같은 先古典語的 用法이 兩立한다는 것은 좀 異常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 없다. 勿論 先古典文語에서도 \bar{V} 의 變化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¹²⁾ 이러한 점에서 [B]의 可能性을 是認한다면 黃金史, 더 正確히는 이 句節의 蒙古語의 性格을 決定하는데 있어서 重要な 暗示를 던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B]의 意見도 한 可能性을 提示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ölkelen 은 그 앞에 있는 ünder-i 의 -i 를 對格接尾辭로 보아 動詞로 보아야 할 것이다. ölkelen<ölke-le-n (-le- 는 denominal verb 의 語尾). ölke 는 「南側, 南向」의 뜻. 따라서 筆者는 여기서 「南쪽(기슭에) 따라서」로 暫定的인 試譯을 提示하고 üküi 는 翻譯하지 않고 保留해 두었다.

(12) M. Weiers, *op. cit.*, p. 1966.

(44) sayin sayin **ayalqu-bar** tayilba(잘 옳게 풀이했다). p. 55.

[B 151]는 ...explained it in a very good manner 로 翻譯하고 ayalqu 를 ayalqu(=voice, pronunciation, accent)로 보고 있다. ayalqu 는 勿論 q 字에 二點이 省略된 것으로 보면 ayalqu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yalqu-bar 는 그대로 翻譯한다면 「좋은 소리로」가 될 것이다. 이 字句의 뜻을 正確히 捕捉하기 어려우나 前後 關係로 보아 위와 같은 筆者의 解釋이 可能할 것이다.

(45) čima(恨). p. 65.

[HW 27] 嘆聲 e. Seufzerlaut. 여기서는 「恨」이 文脈上 맞는다. 蒙古源流(V. p. 35)에 의하면 「雖係婦人夫仇已報 今即就死無憾」.

(46) nigen sumu ese **qariγulju** ükübesei bi gebe(한 화살을 주저 말고 쏘고 죽자) p. 71.

[KD 839] redresser (l'arc). 이것은 「拉滿又退回」(五體情文鑑, p. 206)의 뜻이다. 즉 활을 잡아 당겼다가 도중에서 쏘지 않고 다시 늦추는 것을 意味한다. 이것을 普通 뜻대로 보아, [KM 107] 「わしは一本の矢を遣りかへして死ぬのだ」로 또 [B 162]는 Let me die without returning a single arrow 로 翻譯하고 있다. 本稿에서는 意譯해서 「주저 말고 쏘고」로 보았다.

(47) qayan ĵinong qoyayla qoriγlaju dongγuddurun bayilγam gegsen kümtin baran dongγudduyči buyu gebe.(可汗과 지농 두 [사람]은 사람을 저지시키고 꾸짖기를 「중지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인가」고 말했다) p. 72.

[KM 110] 「ハガンとデノンの二人は集って, 常人が期待したから, くらい有害な言葉を期待することが出来たらうか」. [B 163] The Qayan and ĵinong grumbled and reprimanded him, saying: "you are one who reprimands a man who has said 'I will stop.' [K 23] 「汗濟農西人遮りて叫

べり ; 罷むといふ人(心ヲ)盡し叫ぶものなるかと」

[48] **öber jāγura ban:** (서로). p. 77.

[K 3—27]는「自らの間に」, [B 166]는 privately 로 翻譯하나 誤譯이다. 또 [KM 117]는 이 語句를 翻譯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慣用句로서「서로, 相互」를 意味한다 : cf. [KD 504] öber jāγura=entre soi, mutuellement.

[49] noyad-un ükül čiyulyan-dur, noqai-yin ükül **qang**-du gegči üligen tegän-č bolba gekü (「官人の 죽음은 盟會(集合)에서, 개의 죽음은 길바닥에서」라는 格言이 여기서 나왔다고 한다). p. 78.

이 句節에서 qang 의 뜻은 Mostaert 의 Text Qraux Ordos (p. 577)에서 비로서 밝혀진다. 이와 同一한 格言이 그의 Ordos 口碑集에 보인다 : noχ^{ān} urχ^kχuul χaŋDu, nojoDin urχ^kχuul ts'ülganDu. 여기서 χaŋ(-Du)의 뜻은 “ruelle, passage étroit entre deux maisons ou deux rangée de maisons [〈chin. hiang巷〉”, [MD 334]. 參考로 Mostaest 의 佛譯은 다음과 같다 : Les chiens meurent dans une ruelle, les noyons meurent à une assemblée publique (Folklore Ordos, p. 564).

[50] eyimu sibayun-i **ütege**-yin kuriyen-dür oroγulju orkiday bile. (이러한 새는 곰의 우리에 넣어버립니다). p. 83

[KM 125]「かういふ鳥を調習(註)の庭に入れさせて置きました」, ((註)「調習」の原語はüdege の假譯である. ゴ氏のロシア語譯本一六九頁八六に「此の語の意味は予は不明である. 意義上, 此は狩獵のために大鷹を訓練する場所を示さなくてはならぬ」とあるによって, 姑く「調習」の譯を施もた). 그러나 üdege 에 그러한 뜻을 아무곳에서도 發見하지 못했다. 따라서 筆者는 原 뜻인 「곰」으로 翻譯했다. [K 3—32]에서는 正確히 翻譯하고 있다 : 「かかる鳥を熊の圈に入らしめ棄つべきである」. [B 83] One used to send such a bird into the(ütege) eclosure, and throw it. 여기서도

뜻을 把握하지 못하고 있다. 이 文章 앞에 다음과 같은 文章이 있다. 「입은 크고 손바닥은 넓고 어깨는 끝이 가늘고 꼬리는 짧다. 이렇게 이상한 새는 차라리 곶의 우리 속에 넣어 버리라는 것이 全體의 뜻이다.

[51] *otoγ* (部族), *ayimaγ* (宗族), p. 84.

蒙古社會組織의 特殊한 用語. *otoγ* 을 構成하는 가장 重要한 것은 地域的인 隸屬이다. 當時의 *otoγ* 은 基本的인 社會的, 經濟的 單位로서 蒙古人은 반드시 어느 *otoγ* 에 속할 義務가 있고 여기 의해서 各種의 社會的, 經濟的 結合 및 一定한 集團에 加入했다. 여기 대해서 *ayimaγ* 는 部族의 分派로서 近親集團이다. *ayimaγ* 가 *otoγ* 와 다른 점은 어느 *ayimaγ* 에 속하는 것은 同一한 親族群中에 속하는 점이다. (13)

[52] *tengri-dür sačuli sačuju* (하늘에 穀物을 뿌리고), p. 91.

Sačuli : [HW 131]灑, *Streuopfer, Libation*. 즉 하늘에 제사를 올릴 때, 馬乳酒를 땅에 뿌리는 儀式을 말한다. 그러나 五體清文鑑(2432 條)에 의하면 「還意撒的米」도 술이 아니라, 쌀 또는 穀物을 뿌린다. 「K 3—40」은 「天に撒米を撒きて」로 五體清文鑑과 같다.

[53] (pp. 46—48) *bing yaqai jil-dür jiran doluyan nasun-dur-iyān*
doluyan sara-yin arban qoyar-a tengri bolba: qasay
tergen-dür külüg-üd-i köljü qan ejen-ü altan kegür-i.
qasay tergen-dür ürgün tegejü qariju ögede bolyan ireküi-dür
sünid-ün kilüketei bayatur ejen-i maytar-un:
qaliqu qarčiyai jęgtür bolun odbau čī ejen min-u
qangginaque tergen-ü tegesi bolbau čī ejen min-u
toγorique tergen-ü tegesi bolbau čī eyen min-u
jirgekü sibayn-u jigtür bolun odbau čī ejen min-u

(13) B. Vladimircov, *op cit.*, pp. 172—177.

ǰirkiraqu tergen-ü tegesi bolbau ċi eǰen min-u:
 geǰü maǰtaǰu irelele muna-yin **köbegün-tür** kürüged. qasaǰ tergen
 inu bulu ċinegen sigedǰü ködelgen yadaqui-dur. tabun öngge -yin
 külüg-üd-i köǰü ǰarǰan yadaǰu. kür yeke ulus ǰobaǰuri-dur.
 sünid-ün kilüketei baǰatur mörgün öċibeı :

- [1] köke möngke tengri-de-ċa ǰayaǰa-bar törögsen
 külüg boǰda eǰen min-u.
 kür yeke ulus-iyan örkijü
 kürbei ċi degedü töröl-degen
- [2] tıbsin baııǰuluǰsan törü ċin-u
 törölen baııǰuluǰsan ulus ċin-u.
 törögülügsen qatun köbegüd ċin-u.
törögsen qan ǰaǰar usun ċin-u tende bölüge.
- [3] **arıǰun-a** baııǰuluǰsan törü ċin-u.
 albalan baııǰuluǰsan ulus ċin-u.
 amaray-tu qatun köbegüd ċin-u.
altan ordu qarsi ċin-u tende bölüge:
- [4] uran-a baııǰuluǰsan törü ċin-u.
 uçıralduǰsan qatud köbegüd ċin-u.
 ur-du[uridu] ǰögegsen olan ulus ċin-u.
 uray elige ċin-u tende bölüge.
- [5] urayümal ulus irgen ċin-u.
 ukiyaǰsan usun ċasun ċin-u.
 olan möǰol ulus ċin-u.
 onon-u deligün boldaǰ-a törögsen ǰaǰar usun ċin-u tende bölüge.
- [6] keger aǰırǰan-i ċin-u kükül-ıyer gürüǰü kıgsen tuǰ süldü ċin-u
 kinggere büriye uriya ċin-u
 kelkü bügüde ulus ċin-u.
 kerülen-ü ködege arulan-u qan saǰuǰsan ǰaǰar usun ċin-u tende bölüge
- [7] bütüküı-yin urida uçıyaǰsan börtekelǰin qatun ċin-u.
 burqatu qan ǰaǰar usun nutuǰ ċin-u
 boqorċi muquli qoyar amaray nöküř ċin-u.
 bürin yeke törü yosum ċin-u tende bölüge:

[8] qubilyan-iyar ućiraγsan qulan qatun čin-u,
 quγur čoγur kōg dayun čin-u.
 qotala bügüde yeke ulus čin-u
 qutuγ-tu qan γajar usun čin-u tende bölüge:

[9] qaraquna qan-i dulayan geǰü
 qatun körbelǰin-i γooa geǰü.
 qari-tan tangγud ulus-i olan geǰü.
 qayira-tu qayučin mongγol ulus-iyar tebčibeü či eǰen min-u.

[10] qayira-tu altan amin čin-u γarbasu.
 qas erdeni metü kegür-i čin-u abču qariya-ni
 qatun börtekelčün-dür čin-u üçügülüye-ni.
 qamuγ ulus-tur čin-u küргеye-ni.

丙亥년에 六七歲로 七月十二日에 昇天했다. 大車에 駿馬를 매고 君主 汗의 黃金 遺骸를 大車에 올려 실어 모시고 도라 갈 때, 쉬닐의 키뤼케테이 바가틀은 君主를 讚揚했다.

나르는 때의 날개가 되어 가십니까? 나의 주여!

소리 내는 車의 짐이 되어 가십니까? 나의 주여!

먹이에 달려드는 때의 날개가 되어 가십니까? 나의 주여!

도는 車의 짐이 되어 가십니까? 나의 주여?

지저귀는 새의 날개가 되어 가십니까? 나의 주여!

삐걱거리는 車의 짐이 되어 가십니까? 나의 주여!

라고 讚揚하고 가서 무나[山] 기슭에 到着했을 때, 大車는 움직이지 않게 [흙에] 빠져서 움직이지 않음에 五色의 駿馬도 끌어내지 못하고 모든 群衆이 크게 우려할 때, 쉬닐의 키뤼케테이 바가틀이 머리 숙여 말했다.

(1) 푸른 永久한 하늘에서 天命으로 태어난 힘센 神聖한 나의 주여!

擴大한 人民을 버리시고, 힘센 神聖한 나의 주여!

오셨나니! 당신은! 上世에!

(2) 平和로이 建設하신 당신의 政道,

制度 세워 建設하신 당신의 나라,

王妃가 나오신 당신의 王子들,

汗이 태어나신 땅과 물이 저쪽에 있나이다.

(3) 깨끗하게 建設하신 당신의 政道,

租稅로 建設하신 당신의 나라,

사랑스런 王妃와 王子들!

당신의 黃金宮殿 저 곳에 있나이다.

(4) 精妙하게 세우신 당신의 政道,

서로 만난 당신의 王妃와 王子들,

前에 모우신 당신의 많은 人民,

당신의 친척, 저기 있나이다.

(5) 당신의 자라는 百姓들,

당신의 沐浴한 물,

당신의 많은 蒙古人民들,

오논(江)의 대리권 몰락에서 태어날 당신의 땅과 물, 저기 있나이다.

(6) 당신의 자색 말꼬리로 엮어 만든 纛標,

당신의 북과 吹貝와 호각,

뭉친 당신의 모든 人民들,

케뤼툰(江)의 퀴뤼게 알란[에서] 汗[으로] 살던 당신의 땅과 물, 저기 있나이다.

(7) 成長하기 전에 만난 당신의 율테젤진 王妃,

불하투 한[山]의 땅과 돌과 부락.

보홀치 무후리, 당신의 두 친구,

完全한 당신의 大政道, 저기 있나이다.

(8) 化身으로 만난 당신의 후란王妃,

당신의 琵琶와 피리와 노래,

당신의 모든 큰 나라,

후룩 한[山], 땅과 물 저기 있나이다.

(9) 하라후나 한[山]이 따뜻하다고,

王妃 쉼빌린이 아름답다고,

他國 당곳의 人民이 많다고,

사랑하는 옛 蒙古人民을 버리시렵니까? 나의 主여!

(10) 사랑스런 당신의 黃金生命이 다 해진다면,

王室 같은 당신의 遺骸를 모시고 갈 것입니다.

당신의 王妃 율테젤진에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人民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ムネ山のさき」. kögebür 은 [KD 2625] un cap, promontoire (?). 本稿에서는 暫定的으로 「기슭」으로 翻譯해 두었다.

Törögülügen qatun : 韻을 맞추기 위해서 qatun 이 뒤에 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意味가 통하지 않는다.

Törögsen qan : 여기서도 위의 語句와 같이 韻關係로 törögsen 과 qan 의 語順이 뒤바뀐 것이다.

이것은 所謂「成吉思汗의 挽歌」라고 불리우는 有名한 韻文이다. 第一段과 第二段으로 區分된다. 兩段이 다 같이 頭韻關係를 잘 理解하지 못하면 混亂을 가져온다. 二段은 四行이 한 節을 이루는 十節로 된 韻文이다. 이 「挽歌」는 蒙古源流와 Altan tobči nova에도 各各 變形되어 나타나고 있다.

[54] (pp. 56—59)

eldeb jüil erdenis-iyer silayuyan sayiqan-iyar bütügen dayidu min-u.

erte-yin qad-un sayuyan jusulang šangdu-yin sira tala min-u.

serigüken sayiqan keyibüng sangdu min-u.

dulaγn sayiqan dayidu min-u

ulayan qalčin tulai jil-e⁽¹⁾ aldayсан qayiran dayidu min-u.

örlüğe manayar ündür degere γarbasu sayiqan uniyar čin-u.

uqaqa-tu qayan min-u emüne laqa ibaquu qoyar geju bölüğe.

uqaju medeju talbiju ilegebei qayiran dayidu-yi

uqayan ügei törögsen noyad-i ulus-iyar-kü qaraju üjelčibei

ükilaju qočorbai bi nutuγ-tu qočoraysan ulayun birayun-dur adali bolbai bi.

eldeb jüil-iyer bütügen naiman tala-tu čayan suburγa min-u.

yeke ulus-un nere törü-yi abun sayuγsan yisün erdeni-iyer bütügen dayidu

qota min-u. döčin tümen mongγol ulus-iyar nere törü-yi abun sayuγsan dörben qayalya-tu dörbeljin yeke dayidu qota min-u.

sačin nom-i delgregülün yabutala tanu sandu dasiγuraju⁽²⁾ qayiran dayidu-yi aldayсан nere töru min-u.

qanaki yanaki⁽³⁾ mongγol ulus-iyar qarajul γayiqayuluγči qayiran dayidu min-u.

ebülün öbölčiküi bolγsan min-u
 ǰun-u ǰusulang keyibüng sanbu min-u
 sayin sira tala min-u.
 laqa ibaquu qoyar-un ügen-dür ese oroγsan qour-un min-u
 qutuγ-tu bayıǰulbai qulusun ordu-yi
 qubilγan sečin qayan ǰusum bölüğe
 keilbüng šandu-yi qumiǰu abtai kitad ulus-tur
 qoričaqui maǰu nere-yi uγaγa-tu qayan-dur talbibai :
 qamuγ-iyar bayıǰulbai qas dayidu-yi
 qarsilan öölčem bölüğe.
 qayiran dayidu-yi qamuǰu abtabai. kitad ulus-tur
 qarsilaque maǰu nere-yi uqaqa-tu qayan-dur talbibai :
 eldeb-üd-iyer bayıǰulbai erdeni dayidu-yi
 erkilen ǰusam bölüğe:
 keibüng sangdu-i endeǰü abtabai. kitad ulus-tur
 erkilekü maǰu nere-yi uqaqa-tu qayan-dur tabitai:
 qaa eǰen-ü ǰogegsen yeke nere törü-yi γayiqamsıγ-tu čičin qayan-u bariγsan
 qayiran dayidu-yi qamuγ ulus-un sitügen tulγa erdeni-tü qota-ǰi qamuǰu abtabai
 kitad ulus-tur qayiram dayidu-yi
 qan tengri-yin köbegün činggis qayan-u altan uruγ-yi
 qamuγ burqan-u qubilγan čičin qayan-u qarsi-i
 qamuγ bodisong-nar-un qubilγan uqaγa-tu qayan
 qan tengri ǰayaγa-bar aldabai qayiran daydu-yi
 qan eǰen-ü qasbuu tamaγa qančulaǰu γarbai
 qamuγ dayisun-u dotora-ača
 qalqulduǰu γarbai.
 buqa temür čingsang bulqa doktor-ača
 qan eǰen-ü altan uruγ-tur qan oron orusıqu boltuγai. tümen üye-dü:
 genedeǰü aldabai qayiran dayidu-yi.
 ger-te-če γarqui-dur erden: sačin nom qočorbai. tere čaγ-tur
 gegen bilig-tü bodisong-nar ilyatuγai
 qoyitu caγ-tur kerüǰü ireǰü toγtatuγai činggis qayan-u altan uruγ-tur:

모든 種類의 寶石으로 곱고 아름답게 덮힌 나의 大都
 옛 汗이 사지던 夏營地, 上都의 놀안 草野!
 시원하고 아름다운 나의 開平上都!
 따뜻하고 아름다운 나의 大都!
 丁卯年에 잃은 애처러운 나의 大都!
 아침에 높고 높게 오르면 아름다운 너의 놀(霞)!
 나의 우하하투汗 앞에 라하 이바후 둘이서 말했다.
 께 같고 알면서 버리고 갔다. 예치로운 大都를!
 無知하게 태어난 官人 國民을 서로 보았다.
 울면서 남았다, 나는! 牧地에 남은 빨간 두살짜리 송아지와 같았다, 나는!
 모든 種類로 이룩한 八面의 나의 白塔!
 大國의 이름[과] 政事를 잡고 살던, 九寶로 이룩한 나의 大都城!
 四十萬 蒙古國民과 政事를 잡고 살던 四門 四角의 나의 大都城!
 教法을 넓혀 갈 때 地獄에 떨어져 애처로운 大都를 잃은 나의 이름과 政事!
 때로 蒙古의 巡邏兵을 놀라게 한 애처로운 나의 大都!
 겨울을 보내는 나의 都城!
 여름의 夏營地인 나의 開平上都!
 나의 좋은 놀안 草野!
 라하 이바후의 말을 듣지 않은 나의 잘못이여!
 福되게 세웠다, 竹殿을!
 化身 세친可汗이 夏營했다.
 開平上都를 包圍해서 빼앗겼다. 中國에게!
 淫亂한 나쁜 이름을 우하하투可汗에게 씌웠다.
 모든 것으로 세웠다. 玉인 大都를!
 混迷하게 冬營했다.
 애치로운 大都를 包圍해서 빼앗겼다. 中國에게!
 混迷한 나쁜 이름을 우하하투可汗에게 세웠다. 모든 것으로 씌웠다,
 모든 것으로 세웠다. 寶의 大都를!
 榮譽롭게 夏營했다.
 開平上都를 잘못해서 빼앗겼다. 中國에게!
 愚鈍한 나쁜 이름을 우하하투可汗에게 씌웠다.
 汗 君主께서 가져온 큰 이름과 政事를, 玄妙한 치친可汗이 세운 애치러운

大都를, 모든 國民이 依持하는 支柱[인] 寶域을 잃었다.

中國에게 애처러운 大都를!

皇天의 아들 징기스可汗의 黃金族을!

諸佛의 化身[인] 치친可汗의 城을!

諸菩薩의 化身[인] 우하하누可汗[은]

皇天의 命으로 잃었다, 大都를!

汗 君主의 玉璽를 소매에 감추어 가져왔다.

모든 敵 속에서

사로 싸우며 내보냈다.

부하 태물丞相을 싸움 속에서!

汗主의 黃金族에게 汗位를 물리자, 萬代에 [이르도록]!

들려서 잃었다. 애처러운 大都를!

집에서 나올 때, 寶 教法을 버렸다, 그때에!

明智 菩薩들이 辨別하시라:

將來 放浪하며 와서 決定하자, 징기스汗의 黃金族에게!

⁽¹⁾ Ulayan qalč'in taulai jil-e: [B 152f]는 in the year of the red(qaljan) Hare 로 直譯하고 그 뜻은 不明이라 한다. [P.]에는 이 句節이 없기에 [KM 83]에서도 省略되어 있다. [B 152]는 또한 ulayan qalč'in 을 ulayayč'in (動物의 털이] 빨간)에서 誤譯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A ulayayč'in-hare or Ting-hare would occur in 1378, however, a date which does not correspond with that of the fall of Peking(1368)이라 한다. 그러나 原文에 taulai (jil)가 있음으로 보아 적어도 ○卯年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1378年과 1368年을 前後한 年度에서 「○卯」가 들어가는 해는 1387年인 「丁卯」年이다. 蒙文年代記에는 中國史籍의 年代와 一致하지 않는 不正確한 年代가 많다.

⁽²⁾ tan-u sandu dasiyuraju : [B 153]는 이 句節을 (while I was propagating the laws of religions), becoming accustomed(? tanu sandu)...로 翻譯하고 있으나 誤解이다.

“qanaki yanaki : cf. [G qayaki yayaki : U. qayanaki yayanaki]
 이러한 점에서 [B 153]는 qara yara, (=par ci par là, de fois à autre)로
 보고 있다. (cf. [KD 391]).

至正 28年(1368) 元の toyon temür uqayatu qayan 즉 順帝가 明軍에
 쫓겨 大都를 버리고 內蒙古의 應昌에 蒙塵한 것은 蒙古史上 有名な 事
 實이다. 그뒤 可汗이 옛 榮光을 생각하며 노래한 形式을 취한 것이 이
 有名な 順帝悲歌이다. 이 悲歌도 蒙古源流, Altan tobči nova 其他 다른
 年代記에 보이는데 各自 差異가 있다. 이 詩는 口頭로 傳承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各者의 差異는 後世의 訂正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및 略號

蒙文書社：蒙文 蒙古史記，北京 1925.

同 影印本，北京 1940. [P₁]

同 再版本 北京 1929. [P₂]

藤岡勝二：羅馬字轉寫・日本語對譯 喀喇沁本 蒙古源流，東京 1940. [K]

Gomboev, G., *Altan Tobči, mongol'skaya Letopis', b Podlinnom Tekste i Perevodlamy Galsanna Gomboyeva*, Sanktpetersburg 1858. [G]

Mostaert, A. and Cleaves, F.W.; *Altan Tobči, A Brief History of the the Mongols*, Cambridge 1952. [U]

Bawden, C.R.; *The Mongol Chronicle Altan Tobči*, Wiesbaden 1955. [B]

Brockelmann, C.; *Mitteltürkischer Wortschatz, nach Mahmūd al-Kasghans Divan Lughat at-Turk*, Leipzig 1928.

de Smedt, A and Mostaert, A. ; *Dictionnair Monguor-Francais*, Peiping 1933.

Haenisch, E.; *Wörterbuch zu Manghol un Niuca Tobca'an*, Leipzig 1939. [HW]
Die Geheime Geschichte der Mongolen, Leipzig 1948.

Heissing, W. and Bawden, C.R.; *Mongγol Borjigid Teük von Lomi(1732)*, Wiesbaden 1957.

Kowalewski, J. E.; *Dictionnaire Mongol-Russe-Francais*, Kazan 1846. [KD]

Luvсандев, A: *Mongol Oros Tal'*, Moscow 1957 [LM]

Mostaert, A.; *Dictionnaire Ordos*, Peiping 1941—1944. [MD]

Sur Quelques Passages de l'Histoire Secrète des Mongoles, Cambridge 1953. *Textes Oraux Ordos*, Peiping 1937

Mostaert, A. and Cleaves, F.W., *Erdeni-yin Tobči*, Part 1, Cambridge 1956.

Pelliot, P., *Historire Secrète des Mongoles I*, Paris 1949.

Poppe, N. *Beitrag zur Kenntnis der Altmongolischen Schriftsprache*, Asia Major 1, 1924.

Geseric, *Untersuchung der sprachlichen Eigentümlichkeiten der mongolischen Version des Gesserken*, Asia Major 3, 1926.

Grammar of Writen Mongolian, Wiesbaden 1954.

Introduction to Mongolian Comparative Studies, Helsinki, 1955.

- Khalkha Mongolische Grammatik*, Wiesbaden 1951.
- Mongolskii Slovar', Mukaddimat al-Adab*, Leningrad 1938
- Poucha, P.; *Die Geheime Geschichte der Mongolen*, Praha 1956.
- Ramstedt, G. J.; *Kalmückisches Wörterbuch*, Helsinki 1935. [RK]
- Schmidt, I.J.; *Geschichte der Ost-Mongolen und ihres Fürstenhauses, verfasst von Ssanang Ssetsen Chungtaidschi der Ordos*, St. Petersburg-Leipzig 1829. [SS]
- Soothil and Hodous; *A Dictionary of Buddhist Terms*, London 1939
- Vladimircov, B. Y.; *Sravnitel'naya Grammatika Mongol'skogo Pis'mennogo iazyka i Chalchaskogo Nareciya*, Leningrad 1929
- Le Regime social des Mongols*, French translation by M. Carow, Paris 1948.
- Weiers, M.; *Untersuchungen zu einer Historischen Grammatik der Präklassischen Schriftmongolisch*, Wiesbaden 1969
- Zamcarano, C. Z.; *The Mongol Chronicle of the Seventeenth Century*, English translation by R. Loewenthal, Wiesbaden 1955.
- 小林高四郎：蒙古黄金史，東京 1941. [KM]
- 小澤重男：Altan Tobci(黄金の史綴)，東京外國語大學論集 別冊 3(1953)，4 (1959). [OA]
- 山本守：聖成吉思汗の家譜，東洋史研究，1—1(pp. 39—46)，1—2(pp. 35—39)，1—4(pp. 43—53,) 1—5(pp. 38—43).
- 江 實：蒙古源流，東京 1940.
- 陸軍省：蒙古語大辭典，東京 1933. [MJ]